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록

- 일 시 : 2019. 7. 23.(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신안준(위원장), 권기혁,
강동진, 김연희, 김이순,
김종현, 목수현, 안창모,
이광표, 추미경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병원 증축공사계획 변경)	3
2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내 현상변경(추모공간 조성)	6
3	등록문화재 제505호 「한성순보」 현상변경(보존처리)	8
4	등록문화재 제509-3호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보존처리)	11
5	「신안 흑산성당」 문화재 등록	17

【검토사항】

6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검토	29
7	「광주 무등산 산장」 문화재 등록 검토	37
8	「광주 누문동 한옥」 문화재 등록 검토	46
9	「매천 황현 관련 유물」 문화재 등록 검토	53

【보고사항】

10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주변 현상변경(경찰버스용전기공급시설)	111
11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현상변경 (야간경관조명 설치)	112
12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무허가 축사 적법화)	113
13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 (독립민주축제 행사)	114
14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병원 외래접수동 증축)	116

심 의 사 항

1.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병원 증축공사계획 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강북삼성병원 증축공사' 계획의 기 현상변경 허가 한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강북삼성병원 증축공사'계획의 기 현상변경 허가(17. 4. 11.) 한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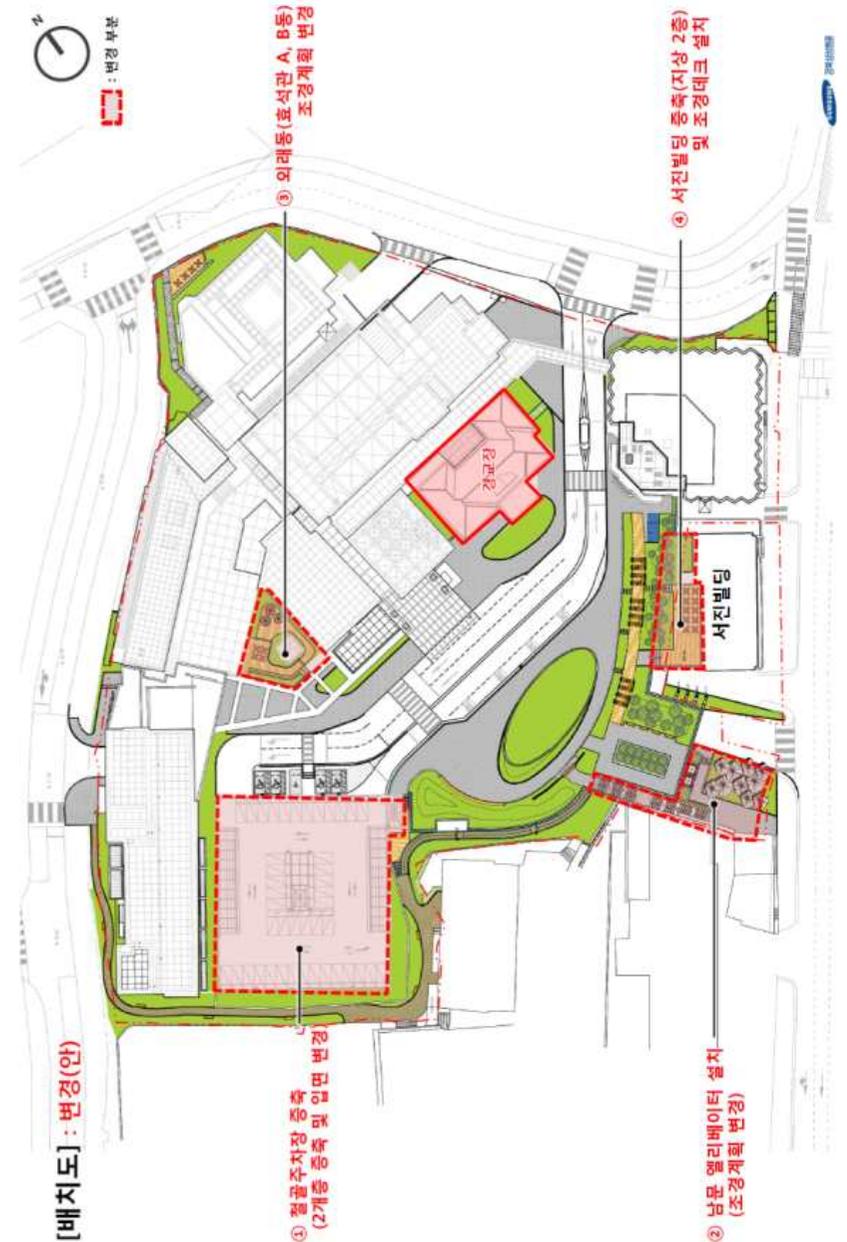
['강북삼성병원 증축공사' 관련 현상변경 허가내용]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일원(강북삼성병원)
- 사업내용: 병원시설(외래동, 복지동, 주차장동) 증축 및 조경
 - 증축 건축면적(958.01㎡), 증축 연면적(15,564.06㎡), 철근콘크리트 구조
 - 기타 : 광장조성(888.03㎡), 조경수 식재(2,545.58㎡), 휴게시설(299.84㎡)
- 허가조건: 제출한 (경교장)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변정비 실시
- 허가일자: 2017.4.11.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북삼성병원장(신호철)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는 보존정책과 소관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 일부 중첩되므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근대문화재과에서 처리 (보존과 제출의견 없음)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개별심의), 22m 이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일원(강북삼성병원)
 - (신규추가)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49-1, 서진빌딩
 - ※ 병원에서 신규 매입하여 병원과 연계 정비 위해 신규 추가 신청함

- 변경내용 : 위치(서진빌딩) 추가, 철골주차장 2개층(5, 6층) 증축, 남문 엘리베이터 신축, 조정개선



[강북삼성병원 증축공사의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내용 요약 배치도]

- 병원부지: 철골주차장 2개층 증축, 남문 엘리베이터 신축, 외래동 조정개선

구분	'17.4월 허가	금회 변경	비고
건축면적 (증축면적)	8,513.66㎡ (958.01㎡)	8,421.90㎡ (866.25㎡)	91.76㎡ 감소 *건축허가 이후 면적 조정(감소)
연면적 (증축면적)	72,203.92㎡ (15,564.06㎡)	74,650.26㎡ (18,010.4㎡)	2,446.34㎡ 증가 *철골주차장 증축(5,6층), 엘리베이터 설치
최대층수 (높이)	지하4층, 지상15층 (61.20m)	좌동	변동없음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좌동	변동없음
용도	의료시설(종합병원)	좌동	변동없음

- 서진빌딩: 지상 2층 증축 및 주차장 상부와 연계하여 조정 조성

구분	'17.4월 허가	현황	금회 변경	비고
건축면적 (증축면적)		325.22㎡	475.45㎡	150.23㎡ 증가 *지상2층 증축, 조정 조성
연면적 (증축면적)	허가 내용 없음	4,375.49㎡	4,525.72㎡	150.23㎡ 증가
최대층수 (높이)		지하3층, 지상10층 (34.53m)	좌동	변동없음
구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변동없음
용도		업무시설	좌동	변동없음

라. 현지조사 의견 (2019. 7. 15.) : 문화재위원 ○○○, ○○○

- 당초 허가내용에서 철골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으며, 금번 변경신청시 5, 6층 2개층을 추가 증축하려는 사안이며, 현 문화재 관련 기준(양각기준 등) 또는 향후 경교장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더라도 문화재 주변 보호시선 안에 들어오며,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병원 본관 정문 및 경교장 정문 앞 차량 대기차선의 위치는 최대한 경교장 정면을 피하여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안건번호 근대 2019-07-02

2.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추모공간 조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의 당해 문화재구역 내에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당해 문화재구역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추모공간 조성’ 사업이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문화재구역 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허용기준 : 개별심의), 이격거리 3m
 - 신청내용
 - <추모공간 조성>
 - 공간조성 권역 : 24.0m × 13.0m
 - 열연강판 : 12EA (12개 동의 옥사를 상징)
 - 높이3.8m(1908~1945년 수감기간) / 두께25T / 강판간 이격거리 1.8m
 - <제단(향로대, 헌화대, 석재제단)>
 - 제단받침: 1.3m x 4.3m x 0.28m / 재질: 석재
 - 제단: 1.0m x 3.0m x 0.1m (300개의 석재)
 - <바닥포장>
 - 24m x 13m / 재질: 기존 형무소 내 폐벽돌 재활용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9.7.10) / 문화재위원 ○○○, ○○○, ○○○, ○○○〉

- 추모시설의 규모가 인접한 사형장과 한센병사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기존의 사적지 경관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전시 구조물의 검은색(또는 짙은 회색)은 사적지 경관 색상에 비해 지나치게 강해서 문화재 보다 시신의 집중화가 우려되는 등 문화재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서대문 형무소의 중요 유적인 사형장의 존재가 가려지고 추모시설의 규모나 디자인을 감안할 때 서대문형무소 내 문화재 경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설치하고자 하는 '추모공간'이 해당 사적지의 보존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출석 10명 / 부결 9명, 기권 1명

안건번호 근대 2019-07-03

3. 등록문화재 제505호 「한성순보」 현상변경(보존처리)

가. 제안사항

등록문화재 제505호 「한성순보」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재 등록문화재 제505호 「한성순보」의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과 서울대학교 간 체결한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16.6.24.)에 따른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사업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2) 대상문화재

등록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505	한성순보	1식 (460매)	20×29cm, 18~24면	1883.10.31 ~1884.10.9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3) 추진경과
 - (문화재청-서울대)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16. 6. 24.)
 - (서울대) 「한성순보」 현상변경 허가신청(19. 6. 26. / 460매)
- (4) 신청내용 : 「한성순보」 보존처리
 - 사업기간 : 2019. 8. 1. ~ 2019. 12. 31.(신청일 : 2019. 6. 26.)
 - 사업대상 : 한성순보 460매(1883년 ~ 1884년 발행분)
 - 사업내용 : 상태조사, 열화·결손부 보강, 폴리에스터(PE)필름 보관 등
- (5) 보존처리 계획
 - ①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및 문헌·자료조사, 상태조사(두께, PH,색도, 지질 분석)
 - ② 1차 자문회의 개최
 - ③ 클리닝
 - 건식 클리닝 : 부드러운 붓과 클리닝 파우더를 이용 이물질과 오염물 제거
 - 박락 방지 : 색상이 사용된 인장, 수성·유성 펜에 의한 번짐 방지
 - 유물 해체 : 신문지면과 한지 분리, 종이 테이핑 분리
 - 이물질 제거 : 이전 처리 시 사용된 보강지 또는 테이프 제거
 - 습식 클리닝 : 흡습지 위에 올려놓은 후 중성수를 분사하여 이물질과 오염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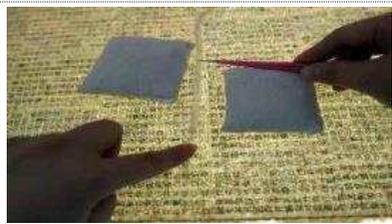
<건식 클리닝>



<습식 클리닝>

④ 보존처리

- 열화부 보강 : 열화로 인해 찢어지거나 갈라진 부분을 복원용 닥섬유 띠로 연결
- 결손부 보강 : 결손된 부분에 본지와 유사한 두께와 색으로 메움



<열화부 보강>



<결손부 보강>

⑤ 평판작업 및 건조 : 나무판과 흡습지 사이에 본지를 넣은 후 프레스기에 넣어 건조



<프레스기 이용 평판작업 및 건조>

⑥ 2차 자문회의 개최

⑦ 보관필름 및 상자 제작 : 폴리에스터 필름에 낱장씩 보관하여 보존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문을 담은 필름에 기록카드와 번호를 작성하여 오동나무상자에 보관



<보관필름(폴리에스터 소재)>

⑦ 보고서 작성 : 재질 및 특성, 보존처리 전·후의 물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록

(6) 현상변경 자문회의 실시('19.7월)

【현상변경 자문회의 결과(서울대 주관, 2019년)】

- 일 시 : 2019. 7. 16.(화) 15:00
- 장 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고문헌자료실
- 자문위원
 - ○○○ 인천대 교수(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한성순보 상태 점검 결과
 - 한성순보는 도서관에서 책으로 제본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해체하고 임시로 배접지에 폴로 고정시켜 둔 상태로, 영구 보존을 위하여 올바른 방식의 보존처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이전 보존처리 과정에서 표면에 부착한 접착테이프 및 임시 보수 처리한 띠지와 메움지 등은 제거가 필요함.
 - * 과거 잘못된 방식으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제대로 된 보존처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현상변경(보존처리) 계획 검토
 - 한성순보는 타 기관 소장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 원형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소장 유물 중에는 가장 훼손이 적은 경제문고본을 기준으로 보존처리 하도록 함.
 - 보존처리 과정에서 자료의 크기 등을 임의로 변형하여서는 안 됨.
 - 일사문고본에 잉크는 처리에 주의가 필요함.
 - 갱지에 인쇄된 3-4호는 처리 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성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보관할 수 있지만, 한지에 인쇄된 5-33호는 지질 상태가 양호한 편이므로 보관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
 - * 원형 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4. 등록문화재 제509-3호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보존처리)

가. 제안사항

등록문화재 제509-3호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재 등록문화재 제509-3호 「대한매일신보」의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과 서울대학교 간 체결한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16.6.24.)에 따른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사업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2) 대상문화재

등록번호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509-3	대한매일신보	1식 (4,914매)	35×51cm, 타블로이드판, 6면	1905~ 1910년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3) 추진경과

- (문화재청-서울대)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16. 6. 24.)
- (서울대)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1차) 허가신청(17. 4. 26.)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조건부) 통지(17. 5. 31.)
 - 대상 문화재의 열람 제한 및 향온향습 관련 대책 마련할 것
- (서울대)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실시(17. 7. 25. ~ 17. 12. 15. / 298매)
 - 대상 문화재 열람을 제한하고, 향온향습이 가능한 수장고에 보관함
- (서울대)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2차) 허가신청(18. 3. 12. / 301매)
-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통지(18. 5. 9.)
- (서울대)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실시(18. 7. 20. ~ 18. 12. 19. / 301매)
- (서울대)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3차) 허가신청(19. 6. 26. / 298매)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중기 계획(붙임 참조)】

- 기간 : 2017년 ~ 2032년 / 16년간
- 대상 : 대한매일신보 1식(총 4,914매)
- 내용 : 영구 보존을 위한 보존처리(연간 300매)

- (4) 신청내용 :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19년)
 - 사업기간 : 2019. 8. 1. ~ 2019. 12. 31.(신청일 : 2019. 6. 26.)
 - 사업대상 : 대한매일신보 298매(1907. 9월분 ~ 1908. 4월분)
 - 사업내용 : 상태조사, 열화·결손부 보강, 폴리에스터(PE)필름 보관 등
- (5) 보존처리 계획(19년)
 - 기본 처리 계획
 - ①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및 문헌·자료조사, 상태조사(두께, PH, 색도, 지질 분석)
 - ② 1차 자문회의 개최
 - ③ 클리닝
 - 건식 클리닝 : 부드러운 붓과 클리닝 파우더를 이용 이물질과 오염물 제거
 - 박락 방지 : 색상이 사용된 인장, 수성·유성 펜에 의한 번짐 방지
 - 유물 해체 : 신문지면과 한지 분리, 종이 테이핑 분리
 - 이물질 제거 : 이전 처리 시 사용된 보강지 또는 테이프 제거
 - 습식 클리닝 : 흡습지 위에 올려놓은 후 중성수를 분사하여 이물질과 오염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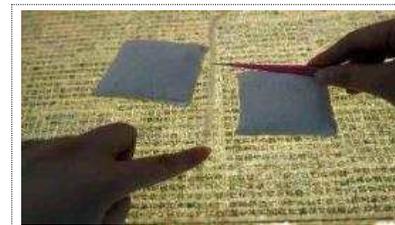
<건식 클리닝>



<습식 클리닝>

④ 보존처리

- 열화부 보강 : 열화로 인해 찢어지거나 갈라진 부분을 복원용 닥섬유 띠로 연결
- 결손부 보강 : 결손된 부분에 본지와 유사한 두께와 색으로 메움



<열화부 보강>



<결손부 보강>

⑤ 평판작업 및 건조 : 나무판과 흡습지 사이에 본지를 넣은 후 프레스기에 넣어 건조



<프레스기 이용 평판작업 및 건조>

⑥ 2차 자문회의 개최

⑦ 보관필름 및 상자 제작 : 폴리에스터 필름에 낱장씩 보관하여 보존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문을 담은 필름에 기록카드와 넘버를 작성하여 중성보존상자에 보관
※ 중성상자는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중기계획 완료 후 오동나무 상자로 일괄 제작 교체 예정



<보관필름(폴리에스터 소재) 및 중성보존상자>

⑦ 보고서 작성 : 재질 및 특성, 보존처리 전·후의 물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록

(6) 현상변경 자문회의 실시('17. 5월)

【현상변경 자문회의 결과(서울대 주관, 2017년)】

- 일 시 : 2017. 5. 12.(금) 14:00
- 장 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고문헌자료실
- 자문위원
 - ○○○ 인천대 교수(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 ○○○ 명지대 주임교수(전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담당관)
 - ○○○ 충북대 교수(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 자문회의 결과

- 현상변경(보존처리) 필요성
 - 대한매일신보는 일정 단위로 책 제본되어 있던 것을 해체하고 임시로 배접지에 폴로 고정시켜 둔 상태로, 영구 보존을 위해서는 올바른 보존처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한매일신보 뒷면에 배접한 표백 처리한 한지는 유물과 물성이 전혀 달라 향후 유물에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제거가 필요함.
 - 배접지 해체 후 남은 폴도 제거가 필요함.
 - 표면에 부착한 접착 테이프(셀로판 테이프) 및 임시 보수처리된 락지와 메움 종이 등은 제거가 필요함.
 - 대한매일신보는 공기 중 산소나 빛에 의해 노출되면 급격히 산화될 수 있으므로, 낱장씩 중성 필름에 넣은 후 중성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할 필요가 있음.
 - ※ 중성 필름에 넣는 처리는 임시 조치이므로, 추후에도 유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함.
- 현상변경(보존처리) 계획 검토
 - 테이프 얼룩은 원지의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에서 제거함.
 - 연필로 기록된 부분은 보존하되, 잉크의 철(Fe) 성분은 열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거가 바람직함.
 - 유물의 보존처리 전 후 산성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탈산처리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함.
 - 보존처리에 사용 될 보강지와 메움지는 유물의 물성에 맞는 종이를 맞춤 제작하여 사용함.
 -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접착제(풀)은 고품(오랫동안 숙성되어 화학적 변화가 없는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되, 물풀의 농도로 사용하도록 함.

붙임 :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 중기 계획 1부.

<붙임>

대한매일신보 현상변경 중기 계획

(2017. 4. 26. / 서울대학교)

-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17년도부터 외부 전문 문화재 수리 사업자를 선정·위탁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연간 300매씩 보존처리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는 2017년부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유문화재위탁 관리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하였음.

- 기 간 : 2017년 ~ 2032년
- 대 상 : 대한매일신보 1식 (총 4,914매)
- 내 용 : 열화 방지를 위한 응급 보존처리 (연간 300매씩)

연번	청구기호	기 간	매수	처리예정
1	YY14 1905(8)/1906(2)	1905.8.18.~1906.2.2.	248	2017년
2	YY14 1905(11/12) 複	1905.11.23.~1905.12.30.	48	2017년
3	YY14 1907(1/6)	1907.1.16.~1907.6.9.	104	2018년
4	YY14 1907(6/8)	1907.6.11.~1907.8.8.	104	2018년
5	YY14 1907(8/11)	1907.8.9.~1907.11.5.	141	2018~2019년
6	YY14 1907(11)/1908(1)	1907.11.6.~1908.1.31.	122	2019년
7	YY14 1908(2/4)	1908.2.6.~1908.4.29.	130	2019년
8	YY14 1908(4/7)	1908.4.30.~1908.7.26.	136	2020년
9	YY14 1908(7/10)	1908.7.28.~1908.10.24.	138	2020년
10	YY14 1908(10)/1909(1)	1908.10.25.~1909.1.21.	134	2020~2021년
11	YY14 1909(1/5)	1909.1.26.~1909.5.18.	166	2021년
12	YY14 1909(5/8)	1909.5.19.~1909.8.14.	148	2021~2022년
13	YY14 1909(8/11)	1909.8.17.~1909.11.12.	132	2022년

연번	청구기호	기 간	매수	처리예정
14	YY14 1909(11)/1910(2)	1909.11.13.~1910.2.9.	138	2022년
15	일사 071 D13m no.91/200	1905.12.1.~1906.4.22.	216	2022~2023년
16	일사 071 D13m no.201/299	1906.4.24.~1906.8.18.	198	2023~2024년
17	일사 071 D13m no.301/400	1906.8.19.~1906.12.19.	196	2024~2025년
18	일사 071 D13m no.401/500	1906.12.20.~1907.5.1.	204	2025년
19	일사 071 D13m no.501/600	1907.5.3.~1907.8.29.	193	2026년
20	일사 071 D13m no.601/700	1907.8.30.~1908.1.4.	200	2026~2027년
21	일사 071 D13m no.701/800	1908.1.5.~1908.5.8.	198	2027년
22	일사 071 D13m no.801/900	1908.5.9.~1908.9.8.	182	2028년
23	일사 071 D13m no.901/1000	1908.9.10.~1909.1.14.	176	2028~2029년
24	일사 071 D13m no.1001/1100	1909.1.15.~1909.5.19.	198	2029년
25	일사 071 D13m no.1101/1200	1909.5.21.~1909.9.18.	196	2929~2030년
26	일사 071 D13m no.1201/1300	1909.9.19.~1910.1.28.	198	2030년
27	일사 071 D13m no.1301/1400	1910.1.29.~1910.6.1.	200	2030~2031년
28	일사 071 D13m no.1401/1467	1910.6.2.~1910.9.4.	132	2031년
29	N071 Se67 1907(7/11)	1907.5.23.~1907.11.5.	164	2031~2032년
30	N071 D13m no.706/799	1908.1.11.~1908.5.8.	174	2032년
계			4,914	

청구기호 'YY14'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본, '일사'는 방중현 선생 기증본, 'N071 Se67', 'N071 D13m'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본 <대한매일신보>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5. 「신안 흑산성당」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신안 흑산성당」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5.28.)를 거쳐 등록 예고한 「신안 흑산성당」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신안 흑산성당
 -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80-20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38, 41, 42, 산79-7번지)
 - 용 도 : 성당(종교시설)
 - 소 유 자 : (재)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330.6㎡, 연면적 330.6㎡
등록예고 중 측량면적: 393㎡
 - 건립시기 : 1958년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3) 등록예고 : 2019. 6. 5. ~ 7. 4.(30일간) * 의견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문화재위원(2019.5.8.)

- 흑산성당은 1957년 설립 이후 흑산도 지역 본당 성당으로서 천주교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공동체 및 상징적 존재로서 역할
- 외벽을 하부는 화강석으로 쌓고 상부는 시멘트모르타르와 등근 차돌로 마감한 석조 외벽, 독특하게 구성된 정면 중앙부 석조 종탑, 내부 천장과 트러스 형식 등이 건축적 특징
- 1958년 최초 건축된 이후 본래 기능인 성당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붕과 내부 바닥 마감 등 일부 변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
- 흑산성당은 흑산도 지역 근대기 역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로서 지속적 역할을 하였고 성당 건물로서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을 지녔고 현재 보존상태 및 향후 보존가능성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2019.5.8.)

- ‘흑산성당’은 지난 1950~60년대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본당으로 건립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축유산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흑산도 내 현존하는 천주교 관련 기타 공소 시설 비해 상징성, 역사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건축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몽돌 등을 건축재료로 활용한 것은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원형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과거의 기록 사진이 다수 현존하고 있는 만큼 원형회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문화재전문위원(2019.5.8.)

- 근대건축의 보존에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 뿐만 아니라 내장재의 보존이 크게 대두되는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내장재가 변경되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음.
- 종교재단이 관리하며 용도는 예배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변경 이력 기록이 부재하여 건축물의 변경과정을 알 수 없음.
- 인근에 옛 중학교가 거의 동시기(1960년)에 거의 동일재료를 써서 건축하고 준공한 사례를 볼 때 이 성당 건물의 원형복원이 요망되며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마. 의견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흑산성당 (구) 흑산성당
- 2. 용 도 : (현) 성당 (원) 성당
- 3.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80-20
- 4. 소유자 : (제)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58년 11월 11일(축성식)
- 수량 및 면적 : 1동, 330.6㎡(건축물대장)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

< ○○○ 문화재위원(2019.5.8.) >

- 1) 개요
 - 서남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지리적 여건상 조선시대까지 제주도, 거제도, 진도와 함께 대표적 유배지로 역할을 하였으며, 손암정약전(1758~1816년), 면암 최익현(1833~1907년)이 흑산도에 유배를 왔던 대표적 인물
 - 흑산도는 1951년 목포 산정동 성당으로부터 선교사가 파견되어 천주교가 전래되었으며, 이후 점차 신도가 증가되면서 1952년 죽항리 공소, 1956년 심리 공소, 1958년 사리 공소를 각각 설립
 - 흑산도의 천주교 신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자 본당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성골롭반 선교회의 도움으로 흑산도 항구와 가까운 진리 마을의 언덕에 성당 신축부지를 마련
 - 1957년 사제관을 석조건물로 우선 완공하고 임시로 미사를 봉헌하다 성당은 1958년 3월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11월 11일 완공하고 축성식을 거행하였으며, 건축 당시 신자들이 건설에 직접 참여
 - 흑산성당은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지역주민들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지원하고 선교, 교육, 의료, 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낙후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
 - 1958년 지역주민을 위한 교량 건설, 1960년 무료 중등과정으로 성모중학교 설립과 같은 해 주민 의료를 위해 성당내 약국 설치, 1969년 지역주민 공동체로서 신용협동조합 설립, 1971년 선박건조와 지역주민 선박수리를 위한 대건조선소 설립, 같은 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건발전소 건설 등이 대표적 사례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흑산성당은 1957년 성골롭반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항구에서 가까운 언덕 위에 부지를 마련한 후 우선 사제관을 완공하였으며, 성당은 1958년 3월 건축을 시작하여 11월 11일 완공하여 축성식을 거행
 - 언덕의 딱딱한 암반지형을 신도들이 깎아내고 성당의 기본적 건축재료였던 화강석과 차돌을 인근 섬 장도로부터 운송해 오는 등 성당 건설과정에 신도들이 직접 참여
 - 등기부등본에 건물내역이 '석조도단층 평가건교회'로 기록되어 있어 기본적 건축 형식은 석조, 함석지붕, 1층 규모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존 건물의 실제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
 - 외벽을 하부는 화강석으로 쌓고 상부는 시멘트모르타르와 등근 차돌로 마감하여 석조 건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석조 외벽을 마감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일 것으로 추정
 - 내부는 기둥이 없는 통간(通間) 형식으로 형성하고 주출입구 상부에 부분적으로 2층을 형성하였으며, 상부 천정은 모서리가 등근 삼각형 형태로 마감되어 지붕트러스가 일반적이지 않은 형식일 것으로 추정
 - 전체적 평면과 형태는 제단과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긴 장축을 중심으로 완벽한 대칭형을 구성하였으며, 나란히 배치된 두 주출입구, 중앙부 대형 아치와 십자가, 상단부 반원형 벽체와 종으로 구성된 독특한 석조 종탑이 강력한 중심성을 표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8년 신축 이후 현재까지 성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하였으므로, 특별히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보존,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
- 전체적으로 신축 당시의 건축원형을 큰 변형이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변형은 2000년 주출입구 상부에 2층 성가대석을 증축하고 2004년 지붕을 본래 함석마감에서 현재의 경량 판넬 마감으로 변경하고 바닥을 본래 목조마루에서 현재의 인조석물갈기로 변경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흑산성당 소유주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관리자 성당 모두 성당의 역사적, 지역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흑산성당 주변에 문화재로서의 보존관리를 저해할만한 요인과 환경은 없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흑산성당 소유주와 관리자 모두 성당이 현재처럼 본당 성당으로 지속적 역할을 하고 본래 용도 그대로 성당으로 지속적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계획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석조 성당의 등록문화재 사례는 여수 구 애양원교회(제32호), 남제주 강병대교회(제38호),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제54호), 울산 언양성당(제103호), 목포 양동교회(제114호), 흥천성당(제162호), 포천성당(제271호), 횡성성당(제371호), 김포성당(제542호), 안동교회

예배당(제654호) 등이 있음

- 흑산성당은 이들과 다르게 실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위에 석조 외벽을 하부는 화강석으로 쌓고 상부는 시멘트모르타르와 등근 차돌로 마감하였고 정면 중앙부 종탑을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

7) 등록가치의견

- 흑산성당은 1957년 설립 이후 흑산도 지역 본당 성당으로서 천주교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심적 공동체 및 상징적 존재로서 역할
- 외벽을 하부는 화강석으로 쌓고 상부는 시멘트모르타르와 등근 차돌로 마감한 석조 외벽, 독특하게 구성된 정면 중앙부 석조 종탑, 내부 천장과 트러스 형식 등이 건축적 특징
- 1958년 최초 건축된 이후 본래 기능인 성당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붕과 내부 바닥 마감 등 일부 변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 상태도 양호
- 흑산성당은 이상과 같이 흑산도 지역 근대기 역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로서 지속적 역할을 하였고 성당 건물로서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을 지녔고 현재 보존상태 및 향후 보존가능성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 것으로 판단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신안 흑산성당’

<○○○ 문화재전문위원(2019.5.8.)>

1) 개요

-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1951년 조수덕(마리아)이라는 인물이 고향인 흑산도 죽항리 일대에서 전교 활동을 하면서 부터로 알려져 있음. 다만, 관련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에 한국 천주교회 창설의 주요인물 중 한 사람인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이 신유박해 당시 흑산도로 유배를 왔으나 이와 관련된 흔적은 보이지 않음.
- ‘천주교 광주대교구 흑산성당’은 최초 1952년 ‘목포 산정동 성당’의 ‘흑산 공소(오늘날 흑산도 죽항리에 건립)’로 출발하여 1958년 현재의 위치에 새롭게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음. 성당 신축은 당시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흑산도 지역을 담당하였던 진요한 신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
- 진요한 신부는 흑산 공소의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골롬바노회’의 도움을 받아 성당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사제관(1957년)과 성당을 순차적으로 건립하였음. 당시 흑산도 및 인근 섬에는 흑산 성당을 비롯하여 장도 공소(1954년), 심리 공소(1956년), 사리 공소(1958년) 등 크고 작은 공소 8곳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음.
- 이밖에, 현재의 성당 정면쪽으로는 과거 성당측에서 운영하였던 ‘성모중학교 교사(1961년 개교)’가 남아 있어 당시 천주교 성당 건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었던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엿볼 수 있음. 다만, 건축물의 외형은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부는 1973년 학교가 폐교된 이후 숙박시설(여관)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성당은 기본적으로 소위, 바실리카식의 장방형 평면을 취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은 네이브, 아일 등의 영역 구분 없이 하나의 통칸으로 구성하고 있음. 남쪽 단면에는 반원아치로 장식한 포치 형태의 출입구를 돌출시켜 설치하였으며 그 반대편 제단쪽으로는 제의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하여 성당 본체 외부에 덧붙여 외부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출입문을 들어서면 좌우측에 유아실과 사무실, 상부에는 중2층의 성가대석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공간은 모두 새롭게 증축된 부분임. 성당 본체의 좌·우측에는 외벽면에 면해 각각 출입문과 고해실 1개소씩을 설치하였음.
- 정면 출입구 상부에는 3층으로 수평 분할된 첨탑이 높게 설치되어 있으며, 최상부에는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종이 매달려 있음. 첨탑 뒤편으로 성당 본체의 지붕 박공면 좌·우측에는 각각 1개소씩 원형(圓形)의 스테인드글라스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의 사진 기록에 의하면, 본래는 기하학 형태의 트레이서리로 분할된 장미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성당 본체 네 면에는 수평으로 분할된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과거의 사진 기록에 의하면, 건립 당시에는 격자문양 살대의 오르내리창이었던 것으로 보임.
-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구조이며 외벽면에는 화강암과 몽돌을 쌓아 마감한 것으로 보임. 특히, 첨탑의 외부를 화강암으로 마감하여 고전적 양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성당 건립은 기본적으로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건축 재료인 석재(화강암,몽돌 등)는 인근에 위치한 ‘장도’에서 직접 운반하여 왔다고 함.
- 지붕가구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목재로 지붕틀을 짜고 그 아래에는 합판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이며, 지붕면은 칼라강판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원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또한, 내부 바닥마감재 역시 현재는 인조석 물갈기로 되어 있으나 관련 기록 사진에 의하면 본래는 장마루를 깔았던 것을 알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창호 및 내부 바닥 등 일부 마감재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첨탑을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체 및 외벽 형태 등은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어 보임.
- 또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성당의 기능으로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성당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성당측에서도 이곳을 흑산도 내 가톨릭 교회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기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종교사적 측면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전라남도 도서지역을 대표하는 천주교 유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주교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흑산성당의 경우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발전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흑산성당’은 지난 1950~60년대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본당으로 건립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축유산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흑산도 내 현존하는 천주교 관련 기타 공소 시설 비해 상징성, 역사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건축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몽돌 등을 건축 재료로 활용한 것은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원형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과거의 기록 사진이 다수 현존하고 있는 만큼 원형회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명칭은 「흑산도 흑산성당」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성당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구’성모중학교’에 대한 등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문화재전문위원(2019.5.8.) >

1) 개요

- 흑산성당은 흑산항의 서쪽 나지막한 언덕위에 위치하며 내·외영산도와 예리방향 방파제로 이루어진 만에 접하고 있음.
- 흑산성당이 위치하는 흑산도는 육지로부터 2시간(쾌속선 소요시간)의 원거리 도서이며 지역 특산물(수산물)이 섬의 경제를 이끌고 있음.
- 1950년대 후반에 지역에서 산출되는 자재를 많이 사용하여 건축하였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흑산성당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하부에 석재를 사용하여 일부 석조이며 벽체 상부의 콘크리트에는 지역(장도)에서 산출되는 몽돌을 삽입하였음.
- 지붕은 목조이나 지붕재는 골합석을 쓰고 있음(당초재는 알 수 없음)
- ‘—’자형의 평면에 고해실, 출입구 등이 좌우측에 2개씩 돌출되어 평범한 작은 종교

건물로 양식적 특징은 없음.

- 전면부에 종탑형 파사드 벽이 올라갔으며 종이 매달려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 및 지붕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 전면 출입구는 안쪽 출입문이 사시문으로 바뀌었으며 안쪽 출입문에 사용되었던 목재문은 돌출 캐노피의 덧문으로 사용되고 있음.
- 외벽의 모든 창호는 당초 목재 오르내림 창이었다고 전하나 사시창으로 바뀌었음.
- 내부 바닥은 당초 마루널이었으나(외부에서 마루밑 환기구가 남아 있음) 인조석물갈기로 바뀌었음.
- 전체적으로 실내의 거의 모든 부분이 변경되어 원형을 잃고 있음.
- 노후화 상태는 거의 보이지 않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근대건축의 보존에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 뿐만 아니라 내장재의 보존이 크게 대두되는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내장재가 변경되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음.
- 종교재단이 관리하며 용도는 예배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변경 이력 기록이 부재하여 건축물의 변형과정을 알 수 없음.
- 인근에 옛 중학교가 거의 동시기(1960년)에 거의 동일재료를 써서 건축하고 준공한 사례를 볼 때 이 성당 건물의 원형복원이 요망되며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조사시점에서 성당의 대지는 입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무허가 건축물과 유사한 상황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원형복원, 혹은 역사적 흔적을 살린 복구계획이 없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아직 복구계획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

다. 기타사항

- 대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 대장이 필요함.
- 건축물의 변형과정(증개축, 수리공사, 자재 및 도장, 등의 상세기록과 도면 및 사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요구됨.
- 향후 복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제682호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2017년 등록)의 경우와 비교하면 건축의 양식적 특징이나 내부 내장재의 변화에 있어서 본 성당은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사료됨. 다른 사례들, 진천성당(제8호), 어은공소(제28호), 원주 대안리 공소(제140호) 등과 비교해서도 흑산성당은 위치상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변형 정도가 심하다고 사료됨.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상당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기존 명칭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사진]



그림1> 전면부 파사드



그림3> 배면 및 외벽구성



그림2> 성당 내부

검 토 사 항

6.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의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경교장」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강북삼성병원장
- (2) 대상문화재
 - 대 상 : 서울 경교장(사적 제465호, '05.06.13.지정)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번지(대)
 - 소 유 자 : 삼성생명보험(주)
 - 지정면적 : 465㎡
- (3)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서울 경교장 보호구역 지정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번지(대)
 - 보호구역 지정 : 지적면적 5,618.4㎡ 중 391.67㎡
- (3) 보호구역 지정 추진경과(경위)

일시	내용
2016.10.2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2016.12.01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부결) -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2017.01.02. ~2017.05.01	경교장 및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2017.03.0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2017.03.28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가결) - 제출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변정비 실시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포함
2018.12.10. ~2019.04.30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자료보고서 작성 착수
2019.01.21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검토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자문
2019.02.21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검토 - 서울 경교장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

라. 지정조사보고서 검토의견(요약)

- ○○○ 문화재위원(2019.7.15)
 - 현재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건물 주변에 보호구역이 필요한 상황임. 병원측에서 수립한 '종합정비계획' 내용대로 건물 전면과 양측면에 391.67㎡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함.
- ○○○ 문화재위원(2019.7.15)
 - 경교장의 지속적 관리와 경관 개선 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중구에 포함되는 확장된 일부 보호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중구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대한 허용기준구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재위원(2019.7.15)
 -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91.67㎡는 기 수립한 '경교장 정비계획'을 근거로 일종의 완충, 녹지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 붙임1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5	대상문화재	사적 제465호 경교장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근대건축
	소속	○○○	직위(직책)	교수/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명칭	경교장 보호구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연혁·유래 및 특징	경교장은 1938년 최초 주택(죽림정)으로 건립되어 1945년부터 백범 김구선생의 거처로 사용되면서 '경교장'이라 지칭되었음. 1968년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이 인수하였으며, 2005년 사적 제465호로 지정
검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현재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 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건물 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이 필요한 상황. 병원측에서 수립한 '경교장 종합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건물 전면과 양측면에 391.67㎡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 관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정 대상 및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대) (5,618.4㎡ 중 391.67㎡) <보호구역> 391.67㎡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현재 경교장 지정구역에 적용되고 있는 현상변경 기준과 동일 적용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 391.67㎡ 구역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완충공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함
검토	종합의견	경교장의 지속적 보호, 관리와 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대)의 일부(391.67㎡)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출자

○○○

문화재청장 귀하

< 붙임2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5	대상문화재	사적 제465호 경교장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근대건축
	소속	○○○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명칭	경교장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강북삼성병원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연혁·유래 및 특징	경교장은 1938년 김세연의 설계로 지어진 최창학의 주택으로 1945년 11월 4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한 김구선생이 1949년 6월 26일까지 피살될 때까지 거주한 민족진영의 중심지였다.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내부는 양식과 일식이 혼합된 건축이다.
검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경교장은 역사성이 높아 자체 방문객이 많고, 주변이 고밀도의 병원 건축으로 둘러싸여 유동인구가 많아, 경교장의 역사적 가치를 진정성있게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지정 대상 및 범위	<보호구역> 391.6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번지(대) (5,618.40㎡ 중 391.67㎡)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현재 경교장 보호구역에 적용되고 있는 현상변경 기준에 따르되, 보호구역 지정이 당해 문화재를 인접한 병원시설과 병원방문객/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확대되는 부분은 5구역을 관리하여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새롭게 보호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경교장의 역사적 진정성을 보호하고, 다중과 번잡한 차량통행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도와 보호구역 사이에 대한 건축적 완충계획 수립이 필요함.
검토	종합의견	경교장의 지속적 보호관리와 경관개선 등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호구역 지정으로 중구에 포함되는 확장된 일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중구에 해당되는 보호구역에 대한 허용기준구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출자

○○○

문화재청장 귀하

< 붙임3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9.07.15	대상문화재	사적 제465호 경교장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	직위(직책)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문화재 종류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명칭	경교장 보호구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됨
	연혁·유래 및 특징	-경교장은 1938년 최초 주택(죽점장)으로 건립, 1945년 백범 김구선생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이때 '경교장'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후 1968년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이 인수하였음 -백범 김구선생이 집무실,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근대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검토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강북삼성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교장을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근 병원측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대) 5,618.4㎡ 중 경교장 정면 및 좌, 우측편으로 391.6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정 대상 및 범위	<보호구역> 391.6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대) (5,618.4㎡ 중 391.67㎡)

보호 관리 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현재 경교장 지정구역에 적용되고 있는 현상변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기 수립한 '경교장 정비계획'을 근거로 일종의 완충공간 확보, 녹지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종합의견	-경교장의 훼손방지 및 주변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1(대)의 일부(391.6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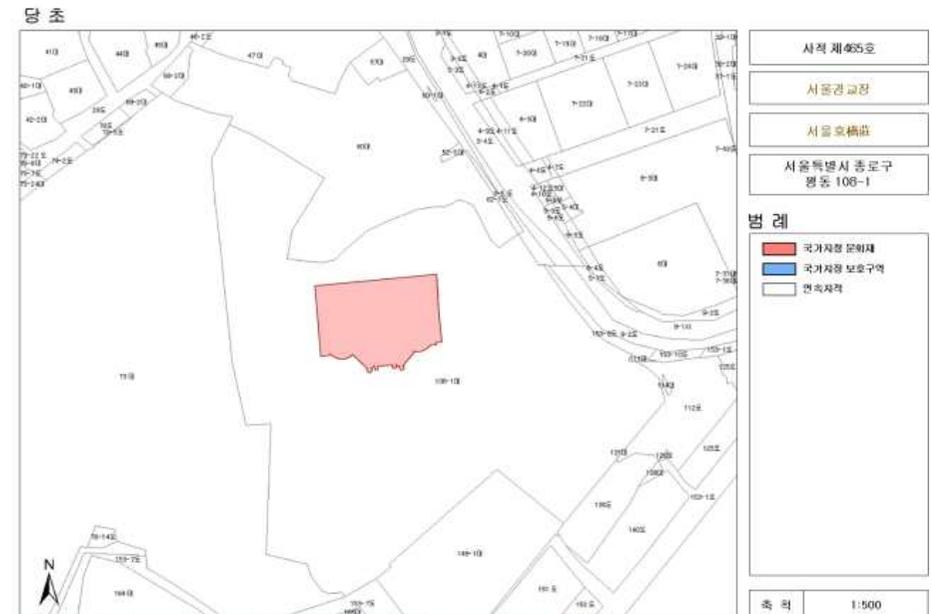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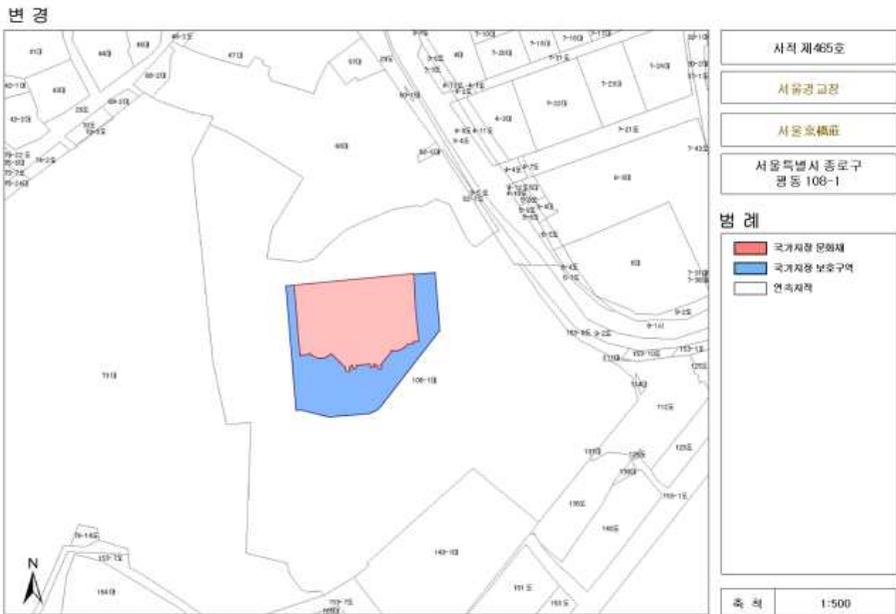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지형도면)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건물면적(연면적,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 경교장	1938년	철근 콘크리트조	5,618.4	1동	전시공간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	중구 태평로2가 150	서울역 사박물관	종로구 세문안로 55
			46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대	5,618.4	391.67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	중구 태평로2가 150	서울역사 박물관	종로구 세문안로 55	문화재 완충공간 확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문하 유역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은 금합니다.



< 현장사진 >



경교장 전경_1



경교장 전경_2

7. 「광주 무등산 산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광주 무등산 산장」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무등산 산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9.7.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무등산 산장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67(금곡동 산3-1번지)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
 - 수량 및 면적 : 3동 / 1호: 276.58㎡, 2호: 72㎡, 3호: 59.6㎡
 - 건립시기 : 1959년
 - 구조 : 목구조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19.7.3.)

- 무등산 산장호텔은 1959년 교통부가 국내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설악산, 서귀포 지역과 함께 건립하였으며 현재 3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되며 목조 구조체, 공간 및 평면구성, 내외부 형태 및 마감 등이 변형되었고 또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매우 노후화 되어 본래 목조 산장으로서의 원형과 특성이 많이 훼손·변형되었으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19.7.3.)

- 1950년대 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산장호텔이며, 또한 동시기에 세워진 다른 지역의 시설들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측면에서 근대기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신처로 사용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역의 근대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임.
- 다만, 1966년과 2012년 크게 두 차례 운용 주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내, 외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현재는 최초 건립 당시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임.
-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19.7.3.)

- 지역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장소성에 의미를 갖는 건축물임
- 반면 산장호텔의 건축적 가치를 살펴보면 과거 기록(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변형이 되어있으며, 소유자 변경 이후 증개축과 보수에 대한 연혁 및 이력을 통해 건축물의 변형과정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고증 자료가 미흡 함
- 문화재 등록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서 예술적·기술적 가치와 같은 건축적 가치와 독창성이나 희소성에 대해 특정 지을만한 요소가 약하고, 당시 구현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양시설로 판단됨.
- 따라서, 무등산 산장호텔은 건립 취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양식이나 의장, 구조와 재료 등에 있어서 건축사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사료 됨

라. 의결사항

- 보류
 - 산장호텔에 대한 추가조사(현장조사 포함) 및 활용계획 보완 필요
- 출석 10명 / 보류 9명, 부결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무등산 산장호텔 (구) 무등산 산장호텔

2. 용 도 : (현) 사찰 부속건물 (원) 숙박시설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67

4.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59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3동, 연면적 408.18㎡
(제1호 276.58㎡, 제2호 72㎡, 제3호 59.6㎡)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2019.7.3.)>

1) 개요

- 1959년 당시 교통부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국내 명승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을 건립 후보지로 선정
-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1957년 설립된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가, 무등산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주도적 역할
- 1959년 무등산의 원효계곡 상류 의상봉 아래에 산장호텔이 건립되었으며, 이후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전남일보 등이 운영하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원효사가 소유, 관리
- 무등산 산장호텔은 원효사로부터 약 1km 떨어져 해발고도 약 370m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하며, 무등산은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
- 무등산 원효계곡 일대가 1960년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원효사와 산장호텔 사이에 식당, 상가 등의 상업시설 단지가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무등산 원효계곡의 자연생태계 복원, 숲과 탐방로 조성 등을 위해 철거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
- 원효계곡 상업시설 단지와 인접한 위치에서 오랜 기간 활용,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매우 노후화된 산장호텔은, 국립공원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흉물이므로 철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무등산 산장호텔은 1959년 교통부가 국내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설악산, 서귀포와 함께 건립하였으며, 현재는 3군데 중 유일하게 현존

- 무등산 원효계곡 상류 의상봉 아래 한적한 숲속에 건설되었으며, 본래 6동이 건축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현재는 3동만 남아 있는 상태
- 숲속에 3동이 자연지형에 맞춰 배치되었으며, 제1동은 대형 연회, 집회용 공간을 갖춘 긴 장방형 건물이고 제2동과 3동은 숙박용 건물로 두 동을 동일한 평면과 형태로 건축
- 기본적 건축형식은 목조 구조체, 박공지붕, 지면보다 높은 바닥, 전면 외부 발코니 등으로 3동이 모두 동일하며, 동 시기에 설악산과 서귀포에 건축된 산장호텔도 이와 유사한 건축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
- 본래는 목구조 산장형식이었으나 현재는 내부 기둥이 철거되고 보강되면서 구조체계가 변형되고 바닥이 본래 목조마루에서 콘크리트 온돌구조로 변형되고 개방되었던 바닥 하부 외곽이 벽체로 폐쇄되고 지붕마감이 기와형 강판으로 변형된 상태
- 그동안 음식점, 숲 문화학교 등으로 사용되며 목조 구조체, 공간 및 평면구성, 내외부 형태 및 마감 등이 변형되어 본래 목조 산장으로서의 원형과 건축적 특성이 많이 훼손되고 변형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그 동안 대중음식점, 숲 문화학교로 사용되며 후면 일부가 증축되고, 본래 목조 구조체가 변형되고, 내외부 마감이 변경되는 등 본래의 건축원형이 많은 부분에서 변형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매우 노후화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공원 무등산의 원효계곡 한적한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은 양호하지만, 국립공원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과 보전을 위해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 원효사 측에서는 개보수 후 템플스테이 등 사찰관련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내용이 없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영광 법성리 일본식여관(제119호), 구 보성여관(제132호) 등의 숙박시설이 등록되어 있지만, 무등산 산장호텔과 같은 산장형식 또는 일제강점기 이후 건축된 숙박시설이 등록된 사례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무등산 산장호텔은 1959년 교통부가 국내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설악산, 서귀포 지역과 함께 건립하였으며 현재 3군데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되며 목조 구조체, 공간 및 평면구성, 내외부 형태 및 마감 등이 변형되었고 또한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매우 노후화 되어 본래 목조 산장으로서의 원형과 특성이 많이 훼손되고 변형되었으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광주 무등산 산장호텔’, ‘광주 무등산 산장’, ‘광주 무등산장’

<○○○ 문화재위원(2019.7.3.)>

1) 개요

- ‘무등산 산장’은 1959년 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교통부) 차원에서 건립한 산장호텔로 ‘무등산’ 원효계곡 상류 의상봉 아래 해발 370m에 위치하고 있음.
- 당시 교통부에서는 국내 명승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해 ‘강원도 설악산’과 ‘제주도 서귀포’, ‘광주 무등산’을 대상 후보지로 선정, 관련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오늘날 무등산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의 시설은 모두 소실된 상태임.
- 무등산 산장이 위치한 원효계곡 상류는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에 속한 사찰림으로 산장호텔 건립을 위해 사찰측에서 토지를 대여해 주었다고 하며, 시공은 지역 업체인 ‘삼영토건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관련 기록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최초 모두 6동의 시설물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연회장’ 건물 1동과 ‘숙소시설’ 2동 등 3동만이 남아 있음.
- 산장호텔이 준공된 후, 최초에는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워 전남일보사가 인수하게 되었고, 그 후 1999년에는 원효사에 운영권이 양도되어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난 10년 전부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이 임시로 몸을 숨긴 곳으로 지역민들 사이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로 기억되어 오고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현존 시설물은 모두 3동으로, 1호로 불리는 장방형의 연회장(추정) 건물과 2호, 3호로 불리는 정방형의 숙소 건물임.
- 3동의 건물 모두 경사진 자연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두고 기단부를 구성한 다음 그 위에 바닥과 상부 구조체를 구축하였음.
- 1호 건물은 장방형의 평면으로 가로 약 32m, 세로 약 6.1m 정도의 규모를 보이며, 정면 중앙부에 설치한 계단을 중심으로 우측편으로 발코니를 길게 놓았음. 상부 가구는 천정이 가설되어 있어 정확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지만, 목조로 지붕틀을 만들고 그 아래에 단면적이 작은 각주를 등간격으로 세워 하중을 받치게 하였음.
- 현재 내부공간은 간막이벽을 이용해 3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본래는 하나의 통간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는 곳곳에 보 부재 등을 새롭게 보강한 흔적이 있음. 배면에 덧붙여진 2동의 창고는 후에 증축된 것임.
- 최초 건립 당시 원형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지붕은 슬레이트 위에 칼라광판을 덧대서 설치하였고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 역시 최근에 교체된 것으로 보임. 다만, 관련 기록에 의하면, 정면 외벽면 상부에 불박이창으로 설치된 세살무늬의 광창(光窓)은 원형으로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면부에 설치된 중앙계단 및 발코니 역시 현재는 타일바닥에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의 기록(사진자료)에 의하면 모두 목재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호, 3호 건물은 면적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평면구성 방법 등에서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음. 평면은 방, 화장실, 발코니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음.
-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방식 및 디테일, 마감재 등은 1호 건물과 흡사하나, 1호 건물의 경우 출입이 정면 중앙부의 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2호 및 3호 건물은 좌측 정면부에 계단을 설치하였음.
- 3동의 건물 모두 최초 준공 이후, 운영기관이 교체되는 시점에 따라 두 차례(1966년, 2012년)의 크고 작은 리모델링(내,외부) 공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의 지붕 구조체를 제외한 다수의 시설이 변형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의 모습(외부)은 일부 사진자료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구조적인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코니 및 계단, 창호 등 전체적인 입면의 형태는 크고 작은 변형이 있어 왔던 것으로 확인됨. 10년 정도 방치되었으나, 노후화 상태는 3동의 건물 모두 비교적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소유자인 원효사 측에서 향후, 사찰의 부속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인 원효사 측에서는 전통불교문화 및 명상체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찰(원효사)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시설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일종의 숙박시설로 사용된 건물(보성여관 등)이 등록된 사례는 있지만, 해방 후, 전문적인 휴양시설로 건립된 시설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50년대 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산장호텔이며, 또한 동시기에 세워진 다른 지역의 시설들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측면에서 근대기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신처로 사용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역의 근대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임.
- 다만, 1966년과 2012년 크게 두 차례 운용 주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내, 외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현재는 최초 건립 당시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임.

-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광주 무등산 산장호텔’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2019.7.3.)>

- 1) 개요
- 무등산 산장호텔은 1959년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국내 명승지 무등산에 건립된 최초의 관광호텔임
 - 당초 건축규모는 10개의 객실과 연회장,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건립
 - 1966년 3월 경영에 어려움으로 전남일보사 인수
 - 1999년 원효사가 운영권을 양도하여 음식점과 무등산 숲 문화학교로 이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무등산 산장호텔은 한국전쟁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국내 주요 관광지에 건립된 건축물 중 하나임
 - 구조는 목구조의 경사지붕으로 지리적 여건상 경사지형을 살려 1층을 들어올려서 만들어진 구조로 바다나 산의 지형조건을 이용해 만들어진 캐빈 또는 방갈로 형태로 나무나 돌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진 숙박시설 용도로 건립 됨
 - 프라이버시 확보, 휴양여건을 만족하기 위해 동 간격을 띄워서 건립하였으며 별채 또는 독채의 개념에 디테치드 하우스(Detached House)로 볼 수 있음
 - 콘크리트 방형 주춧돌 위에 목조기둥을 세워 떠받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외벽 마감은 목조 루버로 마감되어 있음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보수에 대한 연혁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며, 이전 사진자료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개보수 진행된 것으로 확인 됨
 - 당초 1층 개방된 필로티 부분은 현재 자연적으로 마감으로 되어 있음
 - 외부 출입 계단은 사진 기록에 목조로 확인되나, 현재는 콘크리트 계단으로 변형되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 목조난간의 모양의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재료도 일부 철재 난간으로 바뀜
 - 지붕은 서까래가 외부로 돌출되어 처마를 형성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 위에 목재 판재를 씌워 마감된 부분에 골슬레이트 지붕이 덧대어진 후 금속지붕재로 다시 마감되어 있음
 - 내부공간은 넓은 거실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음
 - 거실 바닥은 PVC장판, 벽체와 천정은 벽지마감으로 되어 있음
 - 내부에 일부 기둥은 철거된 후 내부공간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음
 - 누수 및 곰팡이에 의한 오염이 확인 됨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상건축물이 위치하는 무등산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 방문객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원효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어 차량진입 등이 제한적이다.
 -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무등산 관광안내관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
 - 문화재 보존을 저해할 만한 주변 환경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무등산 산장호텔은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목조건축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지리적 여건상 건축물 내구성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미사용되고 있고 보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 계획이 불명확함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미사용 건축물로 장기 지속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환경적인 특성상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에 건축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무등산 산장호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 기타사항
- 호텔에 대한 개보수 연혁 등 고증과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목조건축물 1950년 이전 일제강점기 건립된 관사와 일식가옥 등 사례가 많지만 1950년대 이후 목조건축물은 간이역사와 창고류의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북 문경에 가은역(등록문화재 제304호)은 1955년 9월 15일 문경선(점촌~가은) 개통과 함께 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명칭에 따라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해 1955년 4월 건립된 보통 역사 양식으로 지어진 사례가 있으며, 대전역 동광장에 남아있는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 보급창고 3호(등록문화재 제168호) 등이 한국전쟁 이후에 목구조의 등록문화재로 남아 있음. 유사한 건축물로는 1950년대 초 선교사 휴양시설로 지어진 대천선교사 휴양지에 캐빈 형식의 건축물이 일부 남아 있어 비교가 가능 함
 - 무등산 산장호텔은 광주지역에 최초의 관광형 숙박시설이란 점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구조와 의장, 재료 등에 측면에서 기술적인 발전이나 시대성의 반영과 독창성이나 미학적 표현방식 등에 문화재 등록을 위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특정할 수 없음.

-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지역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장소성에 의미를 갖는 건축물임
 - 반면 산장호텔의 건축적 가치를 살펴보면 과거 기록(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변형이 되어있으며, 소유자 변경 이후 증개축과 보수에 대한 연혁 및 이력을 통해 건축물의 변형과정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고증 자료가 미흡 함

- 문화재 등록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서 예술적·기술적 가치와 같은 건축적 가치와 독창성이나 희소성에 대해 특정 지을만한 요소가 약하고, 당시 구현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양시설로 판단됨.
- 따라서 무등산 산장호텔은 건립 취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양식이나 의장, 구조와 재료 등에 있어서 건축사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사료 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구 무등산 산장호텔'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8. 「광주 누문동 한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광주 누문동 한옥」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누문동 한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9.7.3.)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누문동 한옥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283번길 46-5(누문동 77번지)
 - 소유자 : 박국희
 - 수량 및 면적 : 1동 / 건축면적 80.19㎡(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48년
 - 구조 : 목구조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19.7.3.)

- 조사대상 한옥은 과거 광주 구시가지에서 대표적 주거지였던 누문동의 역사와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 근대한옥이라는 역사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을 거치며 원형이 변형되고 근대한옥으로서의 특성이 훼손되었고 또한, 본채만 남아 있어 주택으로서의 완전성이 미흡하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19.7.3.)

- 과거 근대기 한옥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었던 누문동이라는 지역의 특징 속에서 살펴볼 때, 역사적 가치와 함께 보존 및 활용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오랜 세월동안 생활편의시설 등이 확충되어 오는 과정에서 원형에 대한 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019.7.3.)

- 문화재 평가기준에 미흡함이 있으나 도심형 한옥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현 위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옥 및 건축자산에 관한 법이나 우수건축자산 등 건축자산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등록 가치는 미흡하나 도심형 한옥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자산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음

○ 출석 10명 / 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광주 누문동 근대한옥 (구)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283번길 (누문동 77번지)
4. 소유자 : 박국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283번길)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48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연면적 80.19㎡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2019.07.03.)>

1) 개요

- 조사대상 한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일대는 구도심 지역으로 과거에는 근대한옥이 밀집되며 도심지 내에서 대표적 주거지를 형성
- 현재는 누문동 일대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당시 주거지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안쪽 골목길 주변에만 근대한옥 일부가 남아 있고 도로변에는 대부분 상업시설이 위치
- 조사대상 한옥은 1948년 건축된 근대한옥으로 이 일대에서는 ‘유부자집’이라는 소문난 부자집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본래는 여러 채의 별동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조사대상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
- 조사대상 한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소유주가 변경되어 건축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현 소유주에 의하면 2009년 매입 후 내부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을 하였다고 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사대상 한옥은 과거 누문동 일대에서 대표적 한옥으로 본래 여러 채로 구성되었었지만, 현재는 본래 본채였던 조사대상 한옥과 그 앞쪽의 벽돌조 굴뚝만 남아 있는 상태
- 현재 누문동 일대에 남아 있는 과거 근대한옥들 중에서는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대청 상부의 종도리 하부에 기록된 상량문에 의하면 1948년(檀紀四貳八壹)에 건축
-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일(一) 자형 평면으로 좌측부터 부엌, 방, 대청(2칸), 방의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가구는 2고주 5량식으로 전면과 후면에 각각

퇴칸을 형성

- 부엌을 제외하고 나머지 4칸 전면 퇴칸에 툇마루를 형성하고 상부 퇴보는 자연적 곡선형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전면에 위치하는 6개의 기둥만 원형 기둥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둥은 모두 방형 기둥을 사용
- 본래는 근대한옥이었지만 현재는 전면 미서기 덧창 등 내외부 창호, 내부 마감 및 칸막이 벽체, 현대식 입식부엌 등이 변형되었고 후면과 우측면 일부가 증축되면서 근대한옥 본래의 특성이 훼손된 상태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 원형에서 구조적 변형은 없었지만 여러 차례 리모델링과 증축을 거치며 내부공간과 수장재 등은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며,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며 유지, 관리 상태는 양호하지만 지붕은 변화보수가 필요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가 누문동 일대의 대표적 근대한옥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보존, 관리여건은 양호한 상태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는 당분간 주택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한옥은 다수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한옥은 기존 등록 사례들에 비해 원형의 변형 정도가 심하고 본체만 남아 있어 주택으로서의 완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조사대상 한옥은 과거 광주 구시가지에서 대표적 주거지였던 누문동의 역사와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 근대한옥이라는 역사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을 거치며 원형이 변형되고 근대한옥으로서의 특성이 훼손되었고 또한 본체만 남아 있어 주택으로서의 완전성이 미흡하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로서는 미흡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의한 법률’에 의해 지역의 건축자산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2019.07.03.)>

1) 개요

- 이 번 등록신청한 ‘누문동 한옥’은 현재의 소유주가 지난 2009년에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상량 기록에 의하면 1948년 최초 건립된 것으로 파악됨.

- 소유자 증언에 의하면, 과거 누문동 일대에는 소위, 도시형 한옥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었으며, 동 한옥은 이 일대에서 소문난 부자집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부자집’으로 불렸다고 함.
- 전체적인 구조체는 최초 건립 당시에서 크게 변형된 것은 없어 보이나, 외관의 모습은 적지 않은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는 일(一)자형의 본체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굴뚝만 남아 있으나 본래에는 별동의 부속건물이 여러 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동 가옥은 한때 지역 건설업체인 ‘중도건설’에서 매입 후 주택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었고 또한, 현 소유가 2009년 매입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광주광역시 구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일대에는 동일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도시형 한옥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음.
- 주택은 전체적으로 일(一)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고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좌측부터 부엌(1칸), 방(1칸), 마루(2칸), 방(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면 퇴칸으로는 우물마루를 깔아 툇마루를 만들었으며, 그 끝에는 유리를 끼운 전통창호 문양의 미서기문을 달았는데, 이는 현재의 소유주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것임.
- 가구는 2고주 5량으로 구성하였고 전,후 퇴칸 상부에는 퇴보를 걸었는데, 전면 퇴칸에 사용된 퇴보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곡선의 부재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띄고 있음.
- 실내 인방부재에는 단자가 비교적 양호하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근대기 건립된 한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였는데, 기와 상태로 보아 한동안 변와 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정면에는 모두 원형의 기둥을 설치한 반면, 기타 기둥은 방주를 사용하였음.
- 전체적으로 구조체는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창호 및 내부(특히, 바닥) 마감재 등은 많은 변형이 있었으며, 특히 부엌은 완전히 입식으로 수리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된 원형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구조적인 변형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다만, 여러 차례 리모델링 과정에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내부 공간 및 수장재 등은 많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해 보이나, 변와 공사는 필요해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가 누문동 일대의 근대 한옥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종의 도시형 한옥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전통생활 재현 및 교육의 장소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동 한옥이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소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기에 건립된 소위, 근대 한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과 비교할 때 원형의 훼손 상태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보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과거 근대기 한옥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었던 누문동이라는 지역의 특징 속에서 살펴볼 때, 역사적 가치와 함께 보존 및 활용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오랜 세월동안 생활편의시설 등이 확충되어 오는 과정에서 원형에 대한 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광주 누문동 한옥’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2019.07.03.)>

1) 개요

- 누문동 한옥은 해방 후 1948년(상량문 참조)에 지어진 근대식 한옥으로 현재 독채형 한옥으로 남아 있으며, 전면에 마당이 조성되어 있고, 남동쪽에 면하는 대지경계선 중심부에 적벽돌 굴뚝이 남아 있음
- 전체 연면적은 80.19㎡이며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한칸씩 방이 위치하고, 좌측 마지막 칸은 주방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15년 현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건축물의 증개축 및 보수 이력 등은 남아 있지 않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장방형의 대지에 가옥은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면 남동쪽으로 마당이 위치하고, 남서쪽 방향에 대문이 위치 함
- 누문동 한옥은 폭 4M이하의 좁은 골목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대문을 시작으로 가옥(안채)과 마당, 굴뚝, 외부 휴게공간 구성되었다.
- 가옥은 전체적으로 ‘一’ 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80.19㎡이며, 배면과 우측면은 수평증축되어 사용되고 있음
- 실의 구성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엌 1칸, 방 1칸, 대청 2칸,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측면의 경우 외곽은 2칸의 주칸 구성을 하고 있으며, 정면부에 빗마루 1칸을 두고 있음
- 마당에서 화강석 기단(1단)에 원형 초석 위 원형기둥이 세워짐
- 좌측 첫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은 빗마루전면에 미단이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음
- 지붕은 팔작지붕에 겹처마 구조이고 추녀와 사래가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가옥의 목구조 부재의 상태는 양호하고 이격이나 누트림 등의 현상은 확인되지 않음
- 벽체와 지붕의 상태도 양호하며, 살림집으로 사용되면서 인테리어를 비롯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관리된 것으로 보여짐
- 목부재에 목재용 바니쉬 마감으로 유광 코팅되면서 목재의 질감에 대한 원형이 훼손됨
- 마루 하부는 후대에 토석벽돌을 쌓아 막음
- 전반적으로 가옥의 노후화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교적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상건축물은 광주 금남로와 제일고등학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심지 한옥으로 접근성이 양호함
- 누문동 재개발 지역이 인접하고 있고,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재개발 압력이 예상되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이전 소유자에 의해 내·외부가 증개축 등 리모델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함
- 원형에 대한 수리 등에 이력이 없고, 배치 형태와 가옥에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 보존관리에 관한 계획이 미수립 되어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활용에 계획이 미흡하여 향후 보존과 활용계획이 수립이 필요함

다. 기타사항

- 근대한옥으로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고증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20년대 건립된 광주 장덕동 한옥은 효령대군의 손자인 율원군의 후손들이 거주한 개량한옥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보존되고 있음
-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등록문화재 제704호)은 1930년대 건립된 한옥은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채, 창고, 화장실 등을 전체적으로 한옥 배치 형태 갖추고 있음
-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과, 건축에 대한 기술, 형태와 시대성의 반영 등과 같은 문화재 등록을 위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특정할 수 없음.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문화재 평가기준에 미흡함이 있으나 도심형 한옥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현 위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옥 및 건축자산에 관한 법이나 우수건축자산 등 건축자산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9. 「매천 황현 관련 유물」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매천 황현 관련 유물」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18. 7. 20.)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매천 황현 관련 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문화재위원회('19.2.26.) : '보류' (생활유물 추가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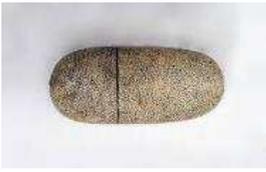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총 54점
- 소유자 : ○○○(매천 황현 후손)
- 소재지
 - (○○○) 전라남도 ○○○
 - (○○○) 전라남도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매천 황현 관련 유물	벼루· 집	3	길이16, 폭11.5 (벼루집 포함)	○○○	
			가로10, 세로14.7	○○○	
			가로17.5, 세로11.5 (벼루집 포함)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연갑	1	가로32.9, 세로28.7, 높이7.4	○○○	
	연적	1	가로8.2, 세로6.3, 높이2.2	○○○	
	필가	1	길이6, 높이8	○○○	
	필통	1	길이16.2, 지름15.5	○○○	
	능화판	1	가로47, 세로21, 높이3.2	○○○	
	족자추	1	길이6, 둘레12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지구의	1	길이26., 높이14, 지름13	○○○	
	지구의 상자	1	가로28, 세로13.5, 높이13.3	○○○	
	석판 (石板)	1	가로23.2, 세로23.2, 높이4.2	○○○	
	안경	3	(안경길이는 다리를 제외한 길이) 길이10.5, 안경알지름3.5 *안경①	○○○	
길이12 *안경②			○○○		
길이11.2, 안경알지름4 *안경③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안경집	5	지름8, 두께1.8 *안경집④	○○○	
지름7.5, 두께1.3 *안경집⑤			○○○		
길이13.6, 폭4.8 *안경집⑥			○○○		
길이16.2, 폭7.6 *안경집⑦			○○○		
길이18.5, 폭8.2 *안경집⑧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호패	2	1) 길이 10 2) 길이 10	○○○	
	합죽선	1	(펼친 상태) 가로43.4, 세로29.5	○○○	
	선추	2	1) 길이8.2 2) 길이9.2, 전체길이:27(장식포함)	○○○	
	상투관	1	길이6, 높이4	○○○	
	갓술	1	가로4.5, 세로3.2, 높이6.8	○○○	
	얼레빗	1	가로10.5, 세로6.5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참빗	1	가로9, 세로5	○○○	
	동곳	2	길이4.8, 길이3.5	○○○	
	휴대용 목침	1	세로11.5, 가로14.2, 높이7	○○○	
	진신	1켤레	길이25.5, 폭7	○○○	
	담배 쌈지	1	가로11.5, 세로12.5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도장 (세부사항 성인근 보고서 참조)	7	3×3 (양면인)		○○○	 매천가장(霖泉家藏)
					 서책시오정력소취기선수호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1.9×1.7×2.2		○○○	 매천(霖泉)
		1.4×1.4×2.6		○○○	 황현지인(黃玑之印)
		1.8×0.8×1.4		○○○	 장상사(長相思)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둘레 1.6 (양면인)	○○○	 전신(傳信)
			1.1×0.8 (양면인)		 미상
			둘레 1.9 (양면인)	○○○	 황운경신(黃雲卿信)
			1.2×0.9 (양면인)		 매천(梅泉)
			지름 4.5, 높이 3.3	○○○	 탁지득거(託志得居) 추정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패철	1	지름11.3, 높이1.6	○○○	
	패철 주머니	1	가로21, 세로24	○○○	
	향로	1	높이16.5, 너비12.5	○○○	
	향합	1	지름8.7, 높이6.5	○○○	
	합	2	1) 지름7.3, 높이5.3 2) 지름7, 높이3.4	○○○	

유물명	세부명칭	수량	규격(cm)	소재지	비고(유물 사진)
	지승 자라병	1	길이19, 너비18.5	○○○	
	소쿠리	1	길이18.5, 폭15, 높이7	○○○	
	곱돌 화로	1	지름16, 높이15	○○○	
	표주박	2	1) 길이12.5 2) 길이10.5	○○○	
	가죽 제품	1	지름6, 두께2	○○○	
	책장	1	가로102.1*높이160.2*폭36.2cm	○○○	
	계	54점			

(2) 추진경과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 개최(18. 7. 20.)
 - 동산(動産) 분야 조사대상 15건 선정(1차 조사대상 8건)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9. 2. 26.) : 보류(생활유물 추가 검토 필요)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차('18. 12. 20.) : ○○○('19. 1. 28.), ○○○, ○○○, ○○○, ○○○, ○○○, ○○○ 7명
 - 2차('19. 2. 1.) : ○○○, ○○○, ○○○, ○○○, ○○○ 5명
 - 3차('19. 6.7 / 안경 도수조사) : ○○○(전 한빛안경박물관장)
 - 4차('19. 6.20 / ○○○ 책장 추가조사) : ○○○, ○○○,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등록번호(가지번호) 검토의견 】

-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지번호 등록 관련 의견
 - ○○○
 - * (1안) 문방구류, 착용유물, 생활용품 3건
 - * (2안) 문방구류, 생활유물 2건
 - ○○○ : 문방구류, 신변잡구 2건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2019.1.28./2019.2.1.)

- 벼루 3개는 황현이 직접 지은 명銘 7수 중 3수가 새겨져있어 매천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는 심한 근시에다 오른눈 사시였던 관계로 20대 중반이후 안경을 착용했는데 관련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그가 착용했던 머리 손질 도구와 신발, 그리고 도장, 패철, 향로,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 그가 사용한 유물들은 19세기말 20세기초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선비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임.
- 아울러, 그가 소장한 다량의 책을 보관하기 위해 구비하였던 책장은 식자인(識字人)으로서의 황현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의미가 깊은 유품임.
- 따라서, 이 유품들은 순절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길이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2018.12.20./2019.2.1.)

- 매천 황현 현손의 유물로 시대성과 민속유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물질문화 연구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민속유물로 중요한 자료임.
- 서울의 천연당天然堂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 보물 제1494호로 지정된 근거가 뒷받침 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함.
- 조사된 매천 관련 민속유물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황현 관련유물로 일괄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문화재위원(2018.12.20./2019.2.1.)

- 본 조사 유물들은 매천의 유학자이자 우국지사로서의 삶이 녹아 있는 유물임. 순국 이후 후손들이 보존해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며, 제작연대가 19세기 후반에서 늦어도 1910년이라는 하한선이 있는 유물로, 조성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시대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2018.12.20.)

- (○○○ 보관유물) 국립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같은 현재 한국인의 전통생활용품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소장 유물과 시대 및 형태 특징이 같고, 1900년 초에 사용한 자료임이 확실하다고 생각됨.
- 특히, 매천 황현 후손 ○○○ 선생 위탁유물은 사용자 및 사용연대가 확실하므로 모두 일괄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12.20./2019.2.1.)

- 황현이 남긴 『梅泉野錄』과 『梧下記聞』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왕성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여 2천여수의 한시를 남겼고, 대한제국기에 전남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후진양성 활동을 펼쳤으며,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단에 항거하여 자진하여 순절하였음.
- 한마디로 황현은 국망기 애국적 지식인의 면모를 잘 드러낸 인물임. 이러한 점에서 황현이 남긴 문방구류, 생활용품, 생활유품 등은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고 있다고 판단함.

○ 성인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2018.12.20./2019.2.1.)

- (○○○ 보관 인장 6점) 후손가에 전하는 매천유물 일괄에 포함되어 있고, 인장 또한 조선 후기~근대기 성명인, 자호인, 봉함인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양식을 띠므로 매천의 실용인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인장 3점은 실제 사용사례까지 확인되었음. 나머지 인장 등도 제작방식과 서체 등에서 동시기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황현의 실용인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 (○○○ 보관 인장 1점) 후손가에 전하는 매천유물 일괄에 포함되어 있고, 인장 또한 조선 후기~근대기 봉합인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양식을 띠므로 매천의 실용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음. 단, 『매천야록』을 위시한, 그의 알려진 간찰 등 매천의 지류자료에서 이 인장이 찍힌 확실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 ○○○ 한빛안경박물관 관장(2018.12.20.)

- (안경①) 우국지사(憂國之士)인 황현은 학자로서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 인물로서 그 시대에 출중(出衆)한 인물로 평가받은 황현의 유물은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안경집⑦, ⑧) 어피 안경집으로서 남성용임을 고려하고 황현이 사용했던 안경과 크기 비슷하여 그 안경과 함께 사용한 안경집이라고 유추(類推)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안경집은 황현의 생활유품으로써 등록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안경집⑥) 안경집 인쇄된 영문(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과 한글로 제중원이라 쓰여있음. 1889년에 제중원이 설립되었고 1904년 9월 4일에 세브란스병원이 설립되었으므로 추정하건데 이 안경집은 1900년 초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시대적으로 황현 유품으로 보이며 생활 유품 등록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史料)됨

○ ○○○ 전북대학교 교수(2019.6.20)

- (○○○ 보관 책장) 매천 황현의 책장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며 순절한 우국지사가 사용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물로 평가됨. 이 책장은 소나무 판자와 한지를 사용하여 만든 3단의 책장으로서, 수많은 책을 소장하고, 저술하였던 조선말 유학자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임. 매천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 ○○○ 문화재전문위원(2019.6.20)

- (○○○ 보관 책장) 한국의 근대기 대표적인 유학자이며 우국지사였던 매천 황현 선생이 사용한 책장으로서, 황현 선생이 소장한 1천여 권의 책을 소장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임. 해당 책장은 소나무 판자 및 한지를 사용한 3단 책장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이 책장은 근대 유학 지식인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등록명칭은 '매천황현 문방구류', '매천 황현 생활유물'로 각각 가지번호를 부여함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2>

「매천 황현 관련 유물」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매천 황현 관련 유물

2. 소재지 : 전남 ○○○ / 전남 ○○○

3. 소유자 : ○○○

4. 조사자 의견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2019.2.1. / 2019.6.20)>

1)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사이에 제작되거나 사용한 문물.

2) 현상

- 매천 황현의 생활유품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그는 선비로서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널리 文名을 떨친 우국지사였음. 따라서 그가 사용한 문방구류를 먼저 들 수 있는데, 벼루와 벼루집, 연갑硯匣, 연적硯滴, 필가筆架, 필통筆筒, 능화판菱花板, 족자추簇子錘, 地球儀(地球團) 및 지구의합地球儀函, 벼루돌이 있음. 황현이 생전에 사용했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 다음으로 그가 생전에 착용했던 유물로서 안경과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기구 및 휴대용 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이 있음. 그리고 도장, 패철佩鐵(나침반)과 주머니, 향로, 향합, (옥)합, 물병, 십각돌화로, 표주박, 소쿠리, 가족제품(용도미상) 등과 같은 생활유물이 남아 있음.
- 끝으로 추가로 조사한 3단 책장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임. 이 유물은 소나무 판자 및 한지를 사용한 3단 책장인데, 뒷면과 문짝은 격자 짜임 위에 한지로 덧입힌 것임.
- 이와 같이 황현의 생활 유품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임. 황현 순절 후 후손들이 각별하게 보존해왔음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음.

3) 내용 및 특징

- 황현(黃玿, 1855-1910)의 자는 운경雲卿, 호는 양운養雲 매천梅泉. 그는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대표적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2,000여 수의 시를 짓고, 한국근대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 등을 저술한 지식인임. 특히 경술국치 직후 순절하면서 남긴 「절명시」 4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회자됨. 정부는 1962년에 그를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로 서훈하였음. 1909년 서울의 천연당사진관에서 촬영한 그의 사진(2점)과 그 사진을 토대로 채용신이 그린 그의 초상화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94호로 지정(2006)되어 있음.

- 황현은 1855년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출생하여 1886년에 전라남도 구례 만수동에 은거하여 주로 담취헌澹翠軒에서 생활하고 구안실荷安室에서 저술과 후학 양성에 주력했음. 1902년에 구례 월곡으로 이거하여 대월헌待月軒에서 『오하기문』 『매천야록』 등을 저술하고 우국시를 지으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순국함.
- 그는 20대의 나이에 만권의 책을 독파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저술에 전념했음. 하지만 그는 사시斜視로 인한 근시여서 20대 이후 안경을 착용했으며, 몸도 허약하여 병치레가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암기력으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음.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 주옥같은 시와 뛰어난 저술을 남겼고, 1888년에는 생원회시에 장원급제하였음. 그의 저술을 비롯한 유품은 동생인 석전 황원(石田 黃瑗, 1870-1944, 독립유공자로서 애족장 추서)을 비롯한 후손들의 정성과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왔음.
- 또한 추가 조사된 그의 책장은 원래 2조였다고 하나, 1조는 매천사 유물관에 보관 중 도난을 당하여 현재 1조만 남은 것이라고 현손이 증언함. 3단 책장은 각 단마다 2개의 문짝이 달려 있으며, 문짝마다 원형 경첩이 2개씩 부착되어 있음. 여닫이 형태의 각 문짝에는 문고리와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책장 안쪽은 각 단마다 한지로 두겹게 배접되어 있음. 책장의 오른쪽 제 1,2단 문짝 안쪽에는 X자형 종이걸이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관하는데 사용했다고 함. 책장의 하부는 1자형 다리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빠져 있는 상태임. 왼 쪽의 제3단 문짝 안의 배접지는 기름기 내지 습기를 다소 머금은 상태임. 이 3단 책장은 그가 소장한 1천여 권의 서적 보관에 필수적인 가구라 할 수 있음.
- 그의 생활유품은 크게 문방구류, 착용 유물, 생활용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문방구류는 벼루와 벼루집, 연갑, 연적, 필가, 필통, 능화판, 족자추, 지구의(지구단) 및 지구의합 등임. 둘째 그가 착용한 유품은 안경 및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 기구 및 휴대용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임. 셋째 생활용품으로는 도장, 패철(나침반) 및 주머니, 향로, 향합, (옥)합, 물병, 십각돌화로, 표주박, 가족제품(용도미상), 소쿠리 등임.
- (문방구류) 벼루와 벼루집, 연갑, 연적, 필가, 필통, 능화판, 족자추, 지구의 및 지구의합, 벼루돌.
- 벼루(3점) 벼루집(2점) 연갑(1점) 연적(1점) : 황현이 직접 지은 명銘 7수가 『매천집』 4(한국고전번역원, 2010)에 수록(121-131쪽)되어 있으며, 그 중 3수가 이번 조사한 벼루에 새겨져 있음(아래에 벼루명을 제시함). 따라서 매천이 직접 명을 짓고 사용한 벼루로 판단됨.

(1) <『매천집』 권7 / 명(銘) / 벼루에 대한 명 [硯銘, 1909] : 『매천집』 4, 130쪽
 문예의 발 날로 갈면 추수 풍성하리니 / 禾+丸(藝)圃日關秋有穫
 즉묵에 봉하여진 네 공적 가상쿠나 / 余嘉乃績封卽墨

(2) 벼루에 대한 명 [硯銘] : 『매천집』 4, 128쪽
 바탕이 올곧으며 아름다운 게 / 貞固含章
 덕을 지닌 군자의 빛과 같으니 / 君子之光
 오래도록 진실로 좋아하리라 / 其壽允臧

(3) 주연에 대한 명 [朱硯銘] : 『매천집』 4, 131쪽
 검은 먹 가는 게 벼루인 줄 내 알지만 / 硯吾知其磨墨
 때로는 붉은 먹도 갈 때 있나니 / 有時乎研朱
 검은 것만 받드는 유자 아님을 알겠네 / 蓋曰非尙玄之儒

- 그리고 2개의 벼루집은 해당 벼루에 맞춰 짜맞춤한 것으로 판단되며, 1개의 연갑 역시 먹감나무와 오동나무를 덧대어 만든 제품으로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1개의 연적 및 벼루돌도 함께 보존되어 온 점으로 보아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능화판(1점)** : 황현은 일생동안 손수 필사한 책이 100여 권이나 되었고, 그것을 모두 정성들여 필사하고, 정성을 다해 장정을 했다고 그의 동생 황원은 기록하고 있음. (『一生手鈔書冊百餘卷 皆精鈔粧池精鑿』 ; 황원, 「선형매천공사행영록」 ; 『매천집』 1 ; 『매천전집』 3, 41쪽). 따라서 이 능화판 역시 황현이 장정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지구의와 지구의합(각 1점)** : 지구의는 일본 東京의 樂善堂에서 제작한 것으로, 지구의합에 써진 내용으로 보아 1907년 음력 4월에 구매한 것으로 판단됨. 황현은 이 지구의로써 지구의 형태와 지리적 지식을 축적하여 1900년대 후반 세계정세의 파악과 구미의 근대지식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그는 1908년 이후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 노선을 적극 실행하고자 노력했음.
- 현존의 설명에 따르면 필가와 필통, 연적, 족자추, 벼루돌 역시 황현의 유품이라 하여 선대로부터 대를 이어 보존해왔다고 함.
- **(착용 유물) 안경과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 도구 및 휴대용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
- **안경(3점)과 안경집(5점)** : 동생 황원은 그의 형이 근시인데다 오른 눈의 사시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않아 25,6세부터 평생 안경을 착용했다고 기록함(『眼短視而右眼尤拗 自二十六常着眼鏡』 ; 『매천전집』 3, 55쪽). 1909년에 촬영한 사진과 그것을 토대로 1911년에 그린 초상화에도 안경을 착용한 모습임.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1880년을 전후하여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판단됨. 그가 1878년에 처음으로 서울을 다녀왔으니 이 시기를 전후해서 안경을 구입, 착용한 것으로 추정됨. 현존하는 안경집 중에서 세브란스병원 안경집으로 판단하건대, 1904년 말 서울역 앞에 신축된 세브란스병원에서 안경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안경과 안경집 역시 황현 생전에 착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 **호패(2점)** : 부친 시목과 황현의 호패.
- **합죽선과 선추(각 1점), 상투관을 비롯한 머리손질구 일절 및 휴대용목침(1점), 진신(1켄레), 주머니(1점)** 등도 소장자는 선대로부터 전승해온 매천의 유물이라고 함.
- **(생활용품) 도장(5점과 2세트), 패철(나침반) 및 주머니(각 1점), 향로(1점), 향합(1점), (옥)합(2점), 물병(1점), 소쿠리(1점), 십각돌화로(1점), 표주박(2점), 가죽제품(용도미상, 1점), 책장(1점)** 등. 이 중 도장은 ‘黃玿’ 및 ‘梅泉’이라 印刻된 것이 각 2점으로 황현이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梅泉家藏’ 과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라고 인각된 도장은 동생 황원이 제작하여 『매천야록』 『매천시초』 『매천문초』 등 첫번째 속지에 찍었음. 이는, 황원이 대를 이어 서적의 보존을 잘 하여 황현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다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패철을 비롯한 나머지 유품들에 대해서도 소장자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던 매천의 유품이라고 말함.
- 이상과 같이 매천황현생활유품은 편의상 문방구류와 착용유물, 생활용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이 유품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역사가이자 시인으로 살았던 선비 황현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황현의 순국이후 110년째 이러한 유품을 보존하기 위해 4대에 걸친 후손들의 각고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음. 앞서의 순서대로 유품목록을 간단히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부록 참조).

4) 문헌자료

- 자료
 - 黃玿, 『梅泉集』(7권3책), 上海, 1911 ; 『梅泉續集』(2권1책), 上海, 1913 ; 『黃玿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梅泉全集』(전5책),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下, 원문(전3책), 미래문화사, 1985.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 1-4,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연구논저
 - 최인진, 『해강 김규진과 천연당 사진관』, 아라, 2014.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李章熙, 「黃玿의 生涯와 思想」, 『亞細亞研究』 21-2호, 고려대, 1978.
 - 琴章泰 · 高光植, 「梅泉 黃玿」, 『續 儒學近百年』, 驪江出版社, 1989.
 - 黃秀貞,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10, 2002.
 - 홍영기, 「황현」, 『한국사 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 「한말 한 지식인의 이상과 좌절-梅泉 黃玿를 중심으로-」, 『지리산과 인문학』, 브레인, 2010.
 - 이의강, 「매천의 삶과 문학」, 『한문학보』 23, 2010.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황현은 20대의 나이에 1만권의 책을 읽었노라 자부할 만큼 책을 즐겨 읽었음. 이에 따라 그는 문방구류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증표가 바로 벼루라 할 수 있음. 벼루명(硯銘)을 7수나 남긴 점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중에 벼루명이 새겨진 벼루 3개가 현전하고 있음. 그는 심한 근시에도 오름눈 사시였던 관계로 20대 중반이후 안경을 착용했는데 관련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그가 착용했던 머리 손질 도구와 신발, 그리고 도장, 패철, 향로,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 그가 사용한 유물들은 19세기말 20세기초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선비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임. 따라서 이 유품들은 순결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길이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또한 그가 소장한 다량의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의 책장을 구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1조의 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 책장은 식자인(識字人)으로서의 황현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의미가 깊은 유품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매천 황현의 생활유품은 크게 <매천황현생활유품>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3개(혹은 2개) 주제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1) 문방구류(<부록> 1-11항), 2) 착용유물(<부록> 12-18항), 3) 생활유품(19-29항),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면 좋지 않을까 함. 만약 2개 분야로 나눈다면 1) 문방구류(1-11항), 2) 생활유물(12-29항)으로 나누어도 괜찮다고 판단됨. 이는 물론 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 유품들은 그의 저술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매천 황현의 3단 책장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편임. 이로 인해 다리 한쪽을 보수해야 할 상황이며, 문짝의 고리와 잠금 장치, 배접한 한지 등도 시급히 보수해야 할 상태로 판단됨. 이 책장은 황현의 다양한 생활유품에 포함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 지식인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부록 1. 매천황현생활유품목록표 1부.
2. 황현 사진 1부.

<부록1> 매천황현 생활유품 목록표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1	벼루	1			1909년 제작 ○○○
2	벼루	1			다른 면에 '梅泉'이라 새겨져 있음. 1세트 ○○○
3	벼루 (길이 16/폭 11.5)	1			○○○
4	연갑	1			○○○
5	연적	1			○○○
6	필가 (길이 6/ 높이 8)	1			○○○
7	필통 (길이16.2/지름15.5)	1			○○○
8	능화판 (가로47×세로21/높이 3.2)	1			○○○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9	죽자추 (길이 6/ 둘레 12)	2			○○○
10	지구의 및 지구의합	각 1			○○○
11	벼루돌 (가로23.2×세로23.2/높이 4.2)	1			○○○
12	안경 (1) 실다리 : 12, 안경알지름4 2) 검정 : 11.2, 안경알지름4 3) 우각 : 10.5, 안경알지름3.5)	3			○○○
13	안경집 (1) 어피(혹) : 지름8/ 두께1.8 2) 어피(혹) : 지름7.5/ 두께1.3 3) 제중원 : 길이13.6/폭4.8 4) 어피 : 길이16.2/폭7.6 5) 어피 : 길이18.5/ 폭8.2)	5			○○○
14	호패 (1) 길이 10 2) 길이 10)	2			○○○
15	합죽선 (가로 43.4 세로 29.5) 선추(1) 길이9.2/전세길이27(장식포함) 2) 길이 8.2)	각1 , 2			○○○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16	상투관(추가) 갓솔(1) 얼레빗(1) 참빗(1) 동곳(2) 휴대용목침				○○○
17	진신 (길이 25.5/폭 7)	1			○○○
18	주머니 (가로 11.5/세로 12.5)				○○○
19	도장	7			○○○
20	패철 및 주머니	각1			○○○
21	항로	1			○○○
22	항합	1			○○○
23	(옥)합 (지름 7.3x높이 5.3, 지름 7x높이 3.4)	2			○○○

연번	유물명칭 (크기)	수량	유물사진1	유물사진2	비고
24	물병 (길이19×18.5)	1			○○○
25	소쿠리 (길이18.5/폭15/높이 7)	1			○○○
26	삼각돌화로 (지름16/높이 15)	1			○○○
27	표주박 (길이 12.5/길이 10.5)	2			○○○
28	가족제품 (지름 6/ 두께 2)	1			○○○
29	책장 (가로102.1*높이160.2* 폭36.2cm)	1			○○○

<부록2> 보물 제1494호 「황현 초상 및 사진」



<황현 사진>



<황현 초상>

※ 사진, 안경 비교



<○○○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2018.12.20./2019.2.1.)>

1)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사이에 제작되거나 사용한 문물.

2) 현상

- 황현(1855-1910)의 생활유물(민속)은 문방구류, 신변잡구로 나눌 수 있음. 문방구류로는 벼루와 연갑, 연적, 필통, 필가, 능화관, 석판 등이 있음. 매천이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다음으로 신변잡구로는 매천의 사진(1909년 촬영)에서 보듯이 안경과 그리고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안경집, 호패, 합죽선, 선추, 상투관, 표주박, 곱돌화로 지구단(地球團), 자라물병, 패철 등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현손 ○○○에 의해 그동안 잘 보존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황현(1855-1910)은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로서 학자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피탈이 되자 경술국치를 통분하며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음독 순국하였고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등 많은 저서를 남겼음. 1909년 서울 천연당(해강 김규진이 설립한 최초의 사진관)사진관에서 촬영한 2점의 사진과 그 시진을 바탕으로 채용신(1850-1941)이 그린 그의 초상화는 국가지정 보물 제 1494호로 지정되어 있음.
- 그의 생활유물(민속)은 크게 문방구류(文房具類)와 신변잡구(身邊雜具)로 나눌 수 있음.
- 문방구류는 벼루와 연갑, 연적, 필통, 필가, 능화관, 석판 등이 있음. 매천이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벼루에 황현이 직접 지은 3수가 조사한 벼루에 새겨져 있음. 그 벼루를 보관하는 벼루집은 오동나무로 벼루에 꼭 맞게 제작해 보관하고 뚜껑은 없고, 그 벼루를 연갑(硯匣)에 다시 넣어 보관하는데 오동나무와 먹감나무를 덧대어 두 개의 공간을 나누어 한쪽에는 벼루를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붓, 연적, 먹 등을 넣어 두는 공간 나누어 만들었음.
- 다음으로 신변잡구로는 매천의 사진(1909년 촬영)과 보물로 지정된 영정에 착용한 안경이 확인됨. 그리고 안경을 보관할 수 있는 안경집에 세브란스 호스피탈 서울 코리아라는 명문이 금박으로 찍혀 있음. 1904년 말 서울역 앞에 신축된 세브란스병원에서 안경을 구입한 것을 알 수 있음. 호패, 합죽선, 선추, 상투관, 표주박, 곱돌화로 지구단(地球團), 지승자라물병, 패철, 능화관 등이 현손 ○○○에 의해 잘 보관되어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임. 특히 지구단은 일본 동경낙선당(東京樂善堂)에서 제작한 것으로 1900년대 후반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지리를 익히는데 도구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황현 생활유물(민속)은 문방구류와 신변잡구로 나누어 조사 검토하였음. 이 유품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인 매천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음. 황현의 순국 110년째 맞는 시점에서 이러한 소중한 유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련유품을 모두 일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유물 명칭과 수량, 크기, 재질 등은 별지목록 첨부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생몰년이 보여주듯 황현(黃玿, 1855-1910)은 조선후기의 학자로서 매천야록(梅泉野錄), 오하기문(梧下記聞) 등 많은 저서를 남기고 격동을 거쳐 망국으로 귀결된 구한말 삶을 마감하는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의리정신을 다했음. 학자로서 문방구류와 신변잡구 등을 생활유물들이 현손 ○○○에게 전세(傳世) 되었는데 보존상태도 양호함. 그중에 벼루 에 벼루명(硯銘)이 새겨진 벼루가 3점이 잘 보존되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회소가치 있음. 또한 그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경, 안경집, 낙관, 패철, 향로, 향합, 돌화로, 표주박, 진신 등 만든 솜씨나 기법이 매우 우수하고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당시 선비들의 시대상과 물질문화의 생활상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관련유물을 일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황현의 유품은 “매천 황현 생활유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관련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1) 문방구류 2) 신변잡구로 분류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특별전시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 유품은 보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매천 현손 ○○○의 전세傳世 유물로 물질문화 연구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민속유물로 중요한 자료임.
- 매천 황현(1855-1910)의 현손 위탁일괄 유물로 시대성과 민속유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줌
- 서울의 천연당天然堂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 보물 제1494호로 지정된 근거가 뒷받침 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함.
- 조사된 매천관련 민속유물(연번1~34)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황현 관련유물로 일괄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역사적으로 상징적 가치가 있는 민속유물로 등록 가치 있음

* 별지목록(1-34)

연번	유물명칭	수량	크 기(cm)	재 질	비 고
1	안경	3점	안경길이는 다리를 제외한 길이 1) 실다리 : 12, 안경알지름4 2) 김정 : 11.2, 안경알지름4 3) 우각 : 10.5, 안경알지름3.5	경주남석 무소뿔 쇠뿔	
2	안경집	5점	1) 어피(혹) : 지름8/ 두께1.8 2) 어피(혹) : 지름7.5/ 두께1.3 3) 체중원 : 길이13.6/폭4.8 4) 어피 : 길이16.2/폭7.6 5) 어피 : 길이18.5/ 폭8.2	교피鮫皮	
3	도장	1점	지름 4.5 높이 3.3	회양목	
4	선추	2점	1) 길이9.2/전체길이:27(장식포함) 2) 길이 8.2	회양목	
5	합죽선	1점	길이(펼친 상태) 가로 43.4 세로 29.5	대나무	
6	담배쌈지	1점	가로 11.5/세로 12.5	한지(흠치기법으로 만듬)	
7	표주박	2점	1) 길이 12.5 2) 길이 10.5	나무, 옷칠	
8	합	1점	지름 7.3/ 높이 5.3	적남석	
9	향합	1점	지름 7/ 높이 3.4	적남석	
10	죽자추	2점	길이 6/ 둘레 12	적남석	
11	펼가	1점	길이 6/ 높이 8	백동	
12	벼루·집	1점	길이 16/폭 11.5	남포석·나무	
13	상투관 갓술(1) 열레빗(1) 참빗(1) 동곳(2) 휴대용목침	7점	1) 상투관 : 길이6/높이4 2) 갓술 : 가로 4.5 세로 3.2 높이 6.8 3) 열레빗 : 가로9/세로5 4) 참빗 : 가로10.5/세로6.5 5) 동곳 : 길이4.8 6) 동곳 : 길이3.5 7) 휴대용목침 : 11.5×14.2/높이7	종이,옷칠 말총 산유자 대나무 백동 백동 소나무	
14	표주박	1점	지름 6/ 두께 2	종이,옷칠	
15	진신	1족	길이 25.5/폭 7	쇠가죽	
16	지승자라병	1점	길이19×18.5	질흙,종이	
17	펼통	1점	길이16.2/지름15.5	오동나무	

연번	유물명칭	수량	크 기(cm)	재 질	비 고
18	소쿠리	1점	길이18.5/폭15/높이 7	초고草藥	
19	곰돌화로	1점	지름16/높이 15	남석蠟石	
20	능화판	1점	가로47×세로21/높이 3.2	산벚나무	
21	석판(石板)	1점	가로23.2×세로23.2/높이 4.2	남포석	
22	호패	2점	1) 길이 10 2) 길이 10	회양목	
23	지구단 (地球團)	1점		종이, 인쇄,금속, 나무	
24	지구단 상자	1점		종이	
25	벼루	1점		남포석	
	벼루 뒷면				
26	도장	1건 2점		무소뿔	
	도장 해체 및 날인				
27	낙관	3점	매천(梅泉) 매천가장(梅泉家藏) 황현지인(黃鉉之印)	적석	
28	벼루	1점		남포석	
	벼루 옆면 (1)				
	벼루 옆면 (2)				
	벼루 뒷면				
29	벼루집 (硯匣)	1점		먹감나무, 배나무	
	벼루집내부			오동나무	
30	연적(硯滴)	1점		사기	
31	향로	1점		놋쇠	
32	향합	1점		놋쇠	
33	패철	1점		산유자나무	
34	패철 주머니	1점		모직물	

<○○○ 문화재 위원(2018.12.20./2019.2.1.)>

1)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 ~ 1910년

2) 현상

- 매천 황현(1855~1910)이 사용한 유품. 호패가 남아 있고 유품은 크게 문방구류(벼루, 벼루집, 벼루돌, 도장, 硯匣, 硯滴, 筆架, 筆筒, 菱花板, 簇子鍾, 地球儀 및 地球儀函)와 생활 유물(안경,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머리손질용품, 신발, 향로, 향합, 물병, 표주박, 화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함.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물임. 지방에 머물던 유학자가 사학자적인 입장에서 당대의 사건을 기록하여 『매천야록』 등을 남겼으며, 단순히 학자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애국자로서의 의연함을 지닌 인물임. 벼루, 벼루집, 연갑, 연적, 도장, 필가, 필통, 능화판, 지구의 및 지구의합 등의 문방구류는 그의 학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임. 안경, 안경집, 호패, 합죽선, 선추, 머리손질기구, 신발, 패철, 향로, 향합,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은 당시 매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임.
- 도장을 비롯한 벼루, 벼루집, 연갑, 연적, 필가, 필통, 능화판, 족자추, 지구의 및 지구의합, 벼루돌 등 문구류는 황현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벼루 3점의 바닥 혹은 옆면에 매천이 지은 시와 호가 새겨져 있음. 특히 흥미로운 유품은 지구의인데, 이 지구의는 일본 東京의 樂善堂에서 제작한 것이며 ‘丁未四月’로 구입 시기를 함의 내부에 표기해두었음. 매천은 지방의 유학자였지만 근대문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세계 정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임.
- 생활 유물 중에는 화로, 합죽선, 선추, 표주박처럼 매천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확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유물의 제작연대 혹은 유통 시기가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며 그의 현손이 소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음. 단, 3점의 안경 중에서 여성용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조사 유물들은 매천의 유학자이자 우국지사로서의 삶이 녹아 있는 유물임. 순국 이후 후손들이 보존해왔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크며, 제작연대가 19세기 후반에서 늦어서도 1910년이라는 하한선이 있는 유물로, 조성연대가 비교적 분명한 시대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음.
- 황현은 20대의 나이에 1만권의 책을 읽었노라 자부할 만큼 책을 즐겨 읽었음. 이에 따라 그는 문방구류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증표가 바로 벼루라 할 수 있음. 벼루명(硯銘)을 7수나 남긴 점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중에 벼루명이 새겨진 벼루 3개가 현전하고 있음. 그는 심한 근시에다 오른눈 사시였던 관계로 20대 중반이후 안경을 착용했는데 관련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그가 착용했던 머리 손질 도구와 신발, 그리고 도장, 패철, 향로, 물병, 돌화로, 표주박 등 그가 사용한 유물들은 19세기말 20세기초 역사가이자 시인이었던 선비의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임. 따라서 이

유품들은 순절한 우국지사의 일상을 길이 보존하고 이 시기 선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2018.12.20.)>

1) 조성연대 : 1900년대 초

2) 현상

- 안경 및 안경집 등 22건 38점의 유물 대부분이 사대부들의 일상생활용품이므로 사용 흔적 및 부분 손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임.

3) 내용 및 특징

- 복식과 관련한 유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함.
- **안경** : 안경 3점 모두 1900년 초반 전후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사용흔적으로 부분 손상이 있음.
 - 실다리 안경 : 안경알은 원형이고, 안경코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로 귀에 거는 실은 남아있지 않음. 안경테는 우각이고, 코다리는 서각이며, 연결부분은 백통으로 되어 있음. 당시에 흔하게 많이 사용하였던 안경이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 편임.
 - 흑각테 안경 : 안경알은 원형이고, 안경코다리는 운문형태이며 내부에 운문이 투각되어 있음. 안경다리 끝부분에는 원형전보문이 투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 편임.
 - 우각테 안경 : 안경알은 원형이고, 유리의 재료는 경주남석으로 추측된다. 안경테는 우각이고, 안경코다리는 운문형태이며 내부에 운문이 투각되어 있음. 안경다리 끝부분에는 원형전보문이 투각되어 있으나, 안경다리 한쪽끝장식은 박락되었음. 당시에 흔하게 많이 사용하였던 안경이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 편임.
- **안경집** : 안경집 5점 모두 1900년 초반 전후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사용흔적이 있음. 안경을 보관하던 것으로 속은 종이나 나무로 틀을 만들고, 겉은 어피로 싸거나 종이에 흑칠하여 만들었음.
 - 원형 안경집(흑색) : 실다리 안경처럼 안경알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안경집으로 매듭끈 장식이 달려있음. 종이나 나무로 둥글게 틀을 만들고, 어피로 겉을 싸 후 흑칠하였음. 표면에는 두껍을 여닫을 수 있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음. 뚜껑 안쪽에 ‘유리창(琉璃廠)’이라는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안경집은 국립민속박물관에 다수 소장되어 있음.
 - 피 안경집(흰색반점) : 안경을 보관하는 집으로 종이를 여러겹 발라서 타원형의 틀을 만들고, 어피로 겉을 싸서 만들었음. 상부에서 하부까지 연결되는 근을 부착하여 뚜껍을 여닫아도 위 아래 통이 연결되게 하였음.
 - 제중원 안경집 : 안경을 보관하는 집으로 종이를 여러겹 발라서 타원형의 틀을 만들고, 겉을 흑칠하였음. 겉면에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라는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세대학교병원의 전신이었던 제증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겉면의 흑칠이 부분적으로 탈락되었음.

- **선추** : 부채 끝에 매달아 장식하는 것으로 대나무, 학, 오동나무 등을 조각하여 장식하였음. 다른 하나는 나뭇잎사귀를 조각하고 매듭장식이 있음.
- **주머니** :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로 사용 흔적이 있음. 만드는 방식은 귀주머니와 같이 앞 뒤에 주름을 잡아서 접은 모양이나, 원형으로 만든 것이 다름.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허리춤에 매달고 다녔는데, 담배라든지 작은 소지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용도임.
- **상투관, 갓술, 빗, 동곳** : 남자들의 머리를 다듬기 위한 것들로 특히 상투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남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도구들임. 상투관은 집에 있을 때 관을 쓰지 않는 맨머리에 상투에 쓰는 작은 관이고, 갓술은 갓의 먼지를 털거나 정리하는 도구임. 동곳은 상투가 흘러내리게 않게 꽂는 머리핀 같은 것임.
- **진신** : 가죽으로 만든 후 기름을 곁어서 하였고, 바닥에는 징을 박아서 비가 올 때 신음. 상태가 심히 건조하여 가죽이 부서질 위험이 있어서 보존처리가 시급히 필요함.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매천 황현 후손 ○○○ 선생 위탁유물은 문방구류(벼루, 필가, 필통, 도장, 합, 능화관 등), 일상생활용품(안경과 안경집,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 갓술, 빗, 동곳), 외출시 사용하는 용품(호패, 표주박, 주머니, 물병, 휴대용 목침, 진신), 가정용 생활용품(소쿠리, 돌화로) 등 22건 38점으로 1900년 초에 사대부들이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거나 외출시 사용했던 생활용품임.
- 이는 국립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같은 현재 한국인의 전통생활용품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소장 유물과 시대 및 형태 특징이 같고, 1900년 초에 사용한 자료임이 확실하다고 생각됨.
- 특히 매천 황현 후손 ○○○ 선생 위탁유물은 사용자 및 사용연대가 확실하므로 38점 모두 일괄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안경 등 22건 38점의 유물은 1900년 초에 사대부들이 대부분 집이나 외출시 사용하던 생활용품으로 38점 유물이 일괄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가치 있음.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2018.12.20./2019.2.1.)>

1) 조성연대 : 19C 후반 ~ 1910년 전반

2) 현상

- 매천 황현 관련 유품은 벼루와 연적 등 문방구류, 안경과 호패 등 생활용품, 향호와 향합 등 생활유물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이들 모든 유품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임.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 관련 유품은 구한말의 순국지사인 매천 황현(黃玹, 1855-1910)이 사용하거나 소장하거나 하사받은 물품들을 말함. 황현의 유품은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까지 근대문명 도입기 및 국망기의 역사를 살아간 역사가이자 제야선비인 황현의 일상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매천 황현 관련 유품에는 문방구류(벼루와 벼루집, 硯匣, 硯滴, 筆架, 筆筒, 菱花板, 簇子錘, 地球儀(地球圖) 및 地球儀函, 벼루돌 등), 생활용품(안경과 안경집, 호패, 합죽선과 선추, 상투관, 머리손질기구 및 휴대용 목침, 진신[신발], 주머니 등), 생활유품(도장, 佩鐵과 주머니, 향로, 향합, (옥)합, 물병, 십각돌화로, 표주박, 소쿠리, 가죽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매천 황현은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에 걸쳐 제야사가로 유명한 인물임. 그가 구한말 역사를 제야사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정리한 『梅泉野錄』과 『梧下記聞』을 남겼는데, 이들 서책들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임. 아울러 황현은 왕성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여 2천여수의 한시를 남겼으며, 대한제국기에 전남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후진양성 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탄에 항거하여 자진하여 순절하면서 「절명시」 4수를 남겼음. 한마디로 황현은 국망기 및 근대문명 도입기 애국적 지식인의 면모를 잘 나타낸 인물임.
- 대한민국정부는 황현의 공로를 감안하여 1962년 황현을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로 지정하였음. 아울러 1909년 서울의 천연당 사진관에서 촬영한 황현의 사진(2점)과 그 사진을 토대로 채용신이 그린 황현 초상화가 보물 제1494호로 지정되어 있음.
- 황현은 구한말의 역사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인물이며,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사용하거나 소장하거나 하사받은 물품이나 유품 등은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대 박물관이 위탁 보관하고 있는 황현의 유물 및 물품들과 황현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황현의 물품 및 유품들은 근대문화재로 일괄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4) 문헌자료

- 이병기, 『매천 황현 산문 연구』, 보고서, 1995.
- 이병기, 『매천 황현 詩 연구』, 보고서, 1995.
- 김영봉 『매천 황현의 시와 사상』, 보고서, 2017.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홍영기, 「황현」, 『한국사 시민강좌』 41, 일조각, 2007.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황현은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기에 재야선비로서 文名을 떨친 인물임. 황현이 남긴 『梅泉野錄』과 『梧下記聞』은 한국근대사 연구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왕성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여 2천여수의 한시를 남겼고, 대한제국기에 전남 구례에 호양학교를 세워 후진양성 활동을 펼쳤고, 그리고 경술국치 직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탄에 항거하여 자진하여 순절하였음. 한마디로 황현은 국망기 애국적 지식인의 면모를 잘 드러낸 인물임. 이러한 점에서 황현이 남긴 문방구류, 생활용품, 생활유품 등은 근대문화제로 지정할 가치 있다고 판단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황현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황현 선생 유품들을 정밀 조사하여 이들 모두를 ○○○과 같이 안전한 공공기관에 보관,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함.

7)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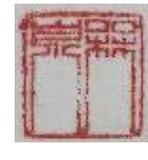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성인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2018.12.20./2019.2.1.)>

가. 매천 황현 가전 인장

- 1) 조성연대 : 조선 후기~근대

<표 1> 황현 후손가 전래 인장

No	인문	인면	인영	크기·형식	재질
①	매천가장(霖泉家藏)			3×3cm 양면인	石
	서책시오정력소취기선 수호(書冊是吾精力所萃 其善守護)				
②	매천(霖泉)			1.9×1.7× 2.2cm	木
③	황현지인(黃玹之印)			1.4×1.4× 2.6cm	木
④	장상사(長相思)			1.8×0.8× 1.4cm	木

No	인문	인면	인영	크기·형식	재질
⑤	전신(傳信)			둘레 1.6cm 양면인	木
	미상			1.1×0.8×cm 양면인	
⑥	황운경신(黃雲卿信)			둘레 1.9cm 양면인	木
	매천(梅泉)			1.2×0.9×cm 양면인	

2) 현상

- ① 석재(石材) 양면인(兩面印)임. 한 면에 ‘매천가장(梅泉家藏)’을 양각으로, 한 면에 ‘서책시오정력소취기선수호(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를 양각으로 새겼음. 서체는 인전(印篆)으로, 조선후기~근대 인장에 보이는 전형을 보임.
- ② 목재(木材) 호인(號印). 매(梅)의 고자(古字) 매(靛)자를 썼음. 인면의 상단에 획을 집중시키고 아래를 시원하게 둔 사례임. 글자와 글자간 서로 대칭이 되도록 인면을 포치했음.
- ③ 목재 인재(印材)에 ‘황현지인(黃玑之印)’ 네 글자를 회문인(回文印)으로 제작하였음.
- ④ 타원형의 목재에 ‘장상사(長相思)’ 세 글자를 양각으로 새겼음. 서체는 인전(印篆).
- ⑤ 뚜껑이 갖추어진 목재(木材) 양면인(兩面印). 한 면에 ‘전신(傳信)’ 한 면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새겼음.

⑥ 뚜껑이 갖추어진 목재(木材) 양면인(兩面印)임. 한 면에 ‘황운경신(黃雲卿信)’을, 다른 한 면에 ‘매천(梅泉)’을 새겼음. 전자는 원형이며, 후자는 장방형임. 전자는 성(姓)+자(字)를 새긴 것이며, 후자는 호를 새긴 인장임. 앞의 2번의 ‘매(靛)’와 달리 ‘매(梅)’자를 썼음이 특징.

3) 내용 및 특징

- ① 책을 중요시한 황현은 후손이 서책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에 ‘매천 집안 소장’ ‘서책은 나의 정력으로 모은 것들이니 잘 수호하길...’이란 인장을 새겨 자신의 중요 도서에 찍었던 것으로 보임. 후손가에 남은 중요 서적에 이 양면인장의 인영이 함께 찍혀 있는 경우가 다량 발견됨(참고도판 1~5). 매천의 실용 장서인으로 보임.
- ② 황현의 호만을 새긴 인장임. 매천의 육필 자료에 이 인장이 찍혀 있어 황현의 실용인으로 보임(참고도판 6).
- ③ ‘현(玑)’자의 모서리 부분이 결락되었으나 황현이 찍은 지류자료에 이 인장이 발견되어 황현의 실용인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음(참고도판 7, 8). 한편 이 도판에는 ‘장수황현운경(長水黃玑雲卿)’의 관향(貫鄉)+성명(姓名)+자(字)를 새긴 인장이 찍혀 있으나 후손가에서 실물이 발견되지 않음.
- ④ 조선시대 문인들은 ‘장상사(長相思)’ ‘장무상망(長無相忘)’ 등의 문구를 인장에 새겨 봉함인으로 흔히 썼으며, 황현 전래 이 인장 또한 같은 사례에 해당함. 황현이 간찰에 찍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 사용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⑤ 인면에 보이는 ‘전신(傳信)’은 조선시대 간찰에 쓰이는 봉함인의 문구로 ‘근봉(謹封)’ 등 문구와 함께 흔히 보임. 한 면에 새긴 인문은 관독이 되지 않으며, 황현 개인의 압(押)을 형상화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 인장이 찍힌 지류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
- ⑥ 황현의 성과 자, 호를 새긴 양면인으로, 간찰과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사용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후손가에 전하는 매천유물 일괄에 포함되어 있고, 인장 또한 조선 후기~근대기 성명인, 자호인, 봉함인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양식을 띠므로 매천의 실용인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인장 1~3번은 실제 사용사례까지 확인되었음. 나머지 인장 등도 제작방식과 서체 등에서 동시기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황현의 실용인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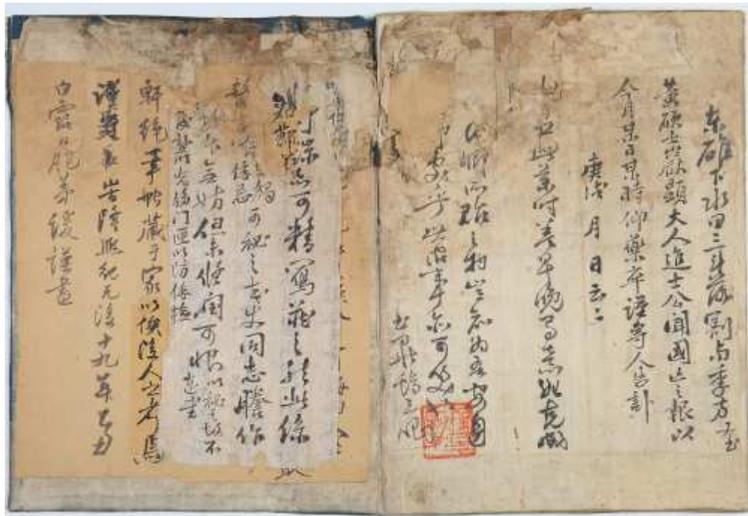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첨부 : 참고도판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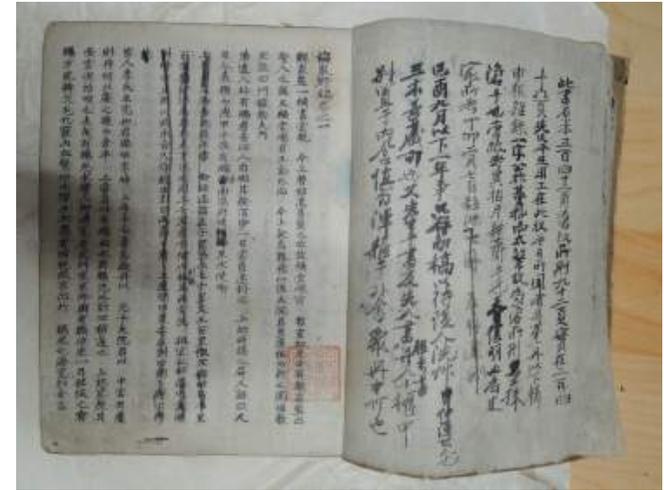
<참고도판>



참고도판 1. 황현의 절명시, [靛泉家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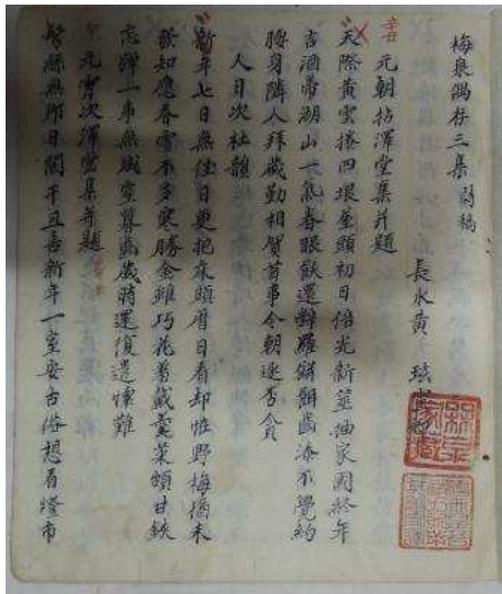
참고도판 2. <황현의 절필첩에 대한 감회>(1925), [靛泉家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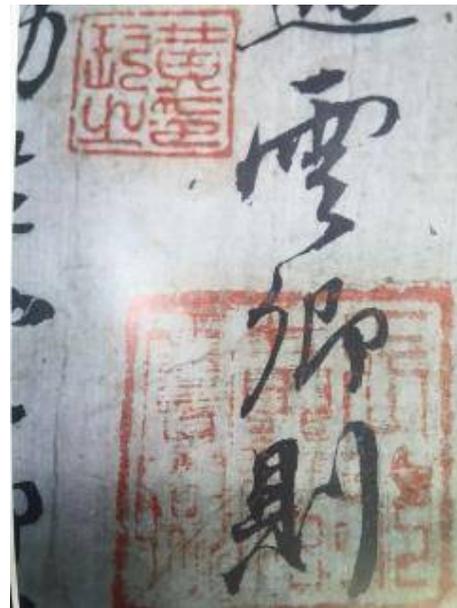
참고도판 3. 매천야록(전7책), [靛泉家藏]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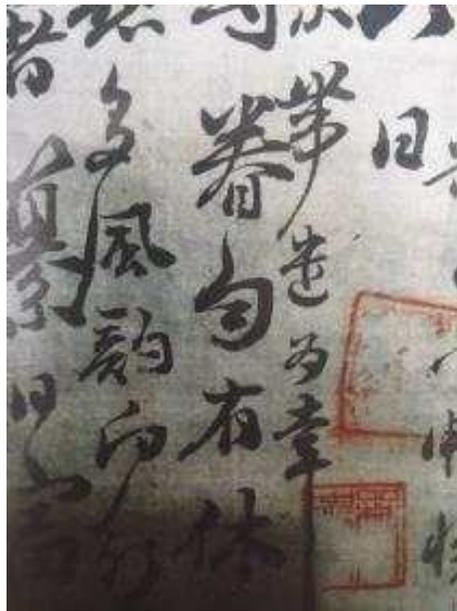
참고도판 4. 오하기문(전7책), [靛泉家藏],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인



참고도판 5. 매천시초(전4책), [霖泉家藏], [書冊是吾精力所萃其善守護] 인



참고도판 7. [黃玘之印], [長水黃玘雲卿] 인



참고도판 6. [霖泉] 인



참고도판 8. [黃玘之印] 인

나. 매천 황현 전칭 인장

1) 조성연대 : 조선 후기~근대

2) 현상

- 원형 인대(印臺) 위에 직방형 인뉴를 갖추었고, 인뉴 하단에 천공을 뚫어 흰색 인끈을 달았음. 보존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인변(印邊)의 인부 결락이 있음. 인문은 조선시대로부터 근대까지 사용한 봉함인(封緘印) 형식의 서체로 4자(탁지득거(託志得居)로 추정)를 새겼음. 중앙의 작은 원형을 중심으로 각 글자마다 역삼각형 형태로 도안한 인문임.



인문의 상태



인대, 인뉴, 인끈의 상태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 후손가에 매천의 생활유물 일괄로 전해지는 20여 건 가운데 인장 1점임. 이러한 형식의 인장은 주로 서화에 찍는 성명자호인(姓名字號印)이나 서책에 찍는 장서인(藏書印)이 아니며, 간찰에 찍은 봉함인(封緘印)의 전형성을 띠.

4) 기타

- 후손가에 전하는 매천유물 일괄에 포함되어 있고, 인장 또한 조선 후기~근대기 봉함인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양식을 띠므로 매천의 실용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매천야록』을 위시한, 그의 알려진 간찰 등 매천의 지류자료에서 이 인장이 찍힌 확실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음.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한빛안경박물관 관장(2018. 12. 19. / 2019. 6. 7.)>

가. 안경1



<그림1-1>

1) 재질, 형태, 사용연대 등

- 재질 : (안경) 우각, (렌즈) 경주남석
- 구분 : 원용(도수확인 좌측 : +sph+0.25 syl-0.25 axsl168)
- 형태 : 원형 꺾다리 우각안경
- 사용연대 : 1910년경

2) 현상

- 현 상태는 우측다리부분<그림1-2>이 파손되었으며 재질이 우각인 관계로 좀(해충)이 먹은 부분이 있음.



<그림1-2>



좌측 도수 +0.25-0.25 axis 168

우측 도수 +0.25-0.25 axis 50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의 유물중 안경역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1900년을 기점으로 전.후 에는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는 문인이나 지식인 등 일부의 사람들이 주로 착용하였는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눈을 많이 사용하여 시력이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매천 황현의 안경은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위 그림의 안경재질을 살펴보면 안경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우각이며 렌즈는 수정(경주남석<추정>)으로 제작되었음.
- 형태는 코 브리지(bridge)(그림1-3)모양은 영지문양.



<그림1-3>

- 다리끝부분은(그림1-4) 전보문양이 투각되어있음.



<그림1-4>

- 그 시대에 우리나라 안경은 대부분 불로장생의 영지문양과 복을 상징하는 전보문양을 넣어 만든 안경이 주를 이루었음.
- 따라서 이 안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안경이 틀림없음.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우국지사(憂國之士)인 황현은 학자로서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 인물로서 그 시대에 출중(出衆)한 인물로 평가받은 황현의 유물은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평생을 집필에 몰두하며 사용하던 문방사우(文房四友) 못지않게 안경 또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기에 가치가 있음.
- 이 안경에 장착되어있는 렌즈는 수정인데(일명 옥안경) 당시에 성행(盛行)했던 안경은 경주 남산에서 채석된 경주 남석을 주로 사용하였음. 경주남석 안경은 자색으로 색상이 아름답고 광택이 많이 나며 온도차가 적고 결점도 없는 편이어서 쓰면 눈이 시원하다는 정평(定評)이 나왔음. 가격 또한 고가로 형성되었고 경주남석이 제일이라는 광고 문구에도 나타나 있으며 경주옥안경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왔음.
- 다음은 지금 서술(敘述)하고 있는 이 안경을 낀 매천 황현 사진과 초상화가 문화재로 등록되어있음. 1909년 석정동96번지 천연당사진관에서 해강 김규진이 매천 황현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석지 채용신은 황현의 순절 후 1911년에 황현초상을 그렸는데 초상화와 함께 사진이 일괄 문화재로 지정되었음.(황현초상 보물제1494호)
- 이렇듯 여러 정황(情況)들을 살펴볼 때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안경의 프레임(frame)재질이 우각이며 우각은 좀(해충)이 먹어들어가는 습성이 있음. 현 상태도 부분적으로 좀이 먹어 손상된 부분이 있으며 보관상태 또는 재질 특성상 세월이 지나갈수록 재질의 견고성이 떨어지고 좀으로 인한 파손의 우려가 있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보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안경2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안경과 안경집은 한 세트로 보여짐)

1) 재질, 형식, 조성연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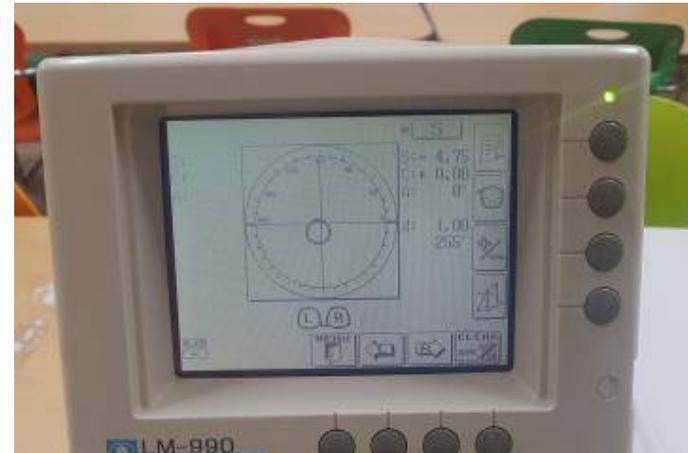
- 재질 : (테) 우각, (렌즈) 수정
- 형식 : 꺾다리 안경 (타원형)
- 조성연대 : 1900년대 전후

2) 현상 :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좌측이 고도근시의 상태임

* (참고 1) : 황현은 우측이 사시이다. 이 안경에 나타난 시력은 좌측이 고도근시로 측정되었다. 이 안경의 근거로 좌측 한쪽만 고도근시였음이 확인되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안경은 황현의 사용 유물임을 알 수 있다.(좌측 shp-4.75 고도근시 / (참고 2)의 도수측정 결과 참고)

* (참고 2) 도수측정 결과

① (참고2-1) 도수 좌측 : -4.75 (고도 근시)



② (참고2-2) 도수 우측 : +0.25-0.25 axis 110



나. 안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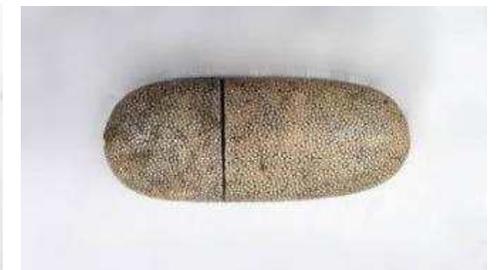
<그림 3-1 (렌즈 파손)>

- 1) 재질, 형식, 조성연대, 현상
 - 재질 : 테(frame) : 우각 / 렌즈(lens) : 파손 / 코연결장식 : 금속
 - 형식 : 실다리안경, 실을 귀에 걸어서 고정, 중앙 장식은 이마 위에 갓끈에 고정해서 사용함.
 - 조성연대 : 1800년대 전,후
- 2) 현상 : 렌즈 없음.

라. 안경집 2점



<그림4-1>



<그림4-2>

- 1) 재질, 형태, 사용연대, 현상 등
 - 재질 : (안쪽) 종이, (바깥쪽) 어피
 - 구분 : 어피 안경집,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안경집은 일반적으로 원형의 형태로 만든 안경집이 주를 이룸. 색상은 어피 안경집은 미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음.
 - 형태 : 뚜껑식 안경집(남성용)
 - 사용연대 : 1910년경
- 2) 현상 : <그림 4-1>는 양호함, <그림 4-2>는 허리춤에 매달은 끈이 손실되었음.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안경집(그림 4-1)은 어피 안경집으로서 남성용임을 고려하고 황현이 사용했던 안경(그림1-1)과 크기 비슷하여 그 안경과 함께 사용한 안경집이라고 유추(類推)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안경집은 황현의 생활유품으로써 등록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양호함

마. 안경집 2점



<그림5-1>

<그림5-2>

1) 재질, 형태, 사용연대 등

- 재질 : (안쪽) 나무, (바깥쪽) 어피
- 구분 : 실다리 안경집
- 형태 : 원형으로 된 어피에 옷칠(그림5-1과 5-2가 동일함)
- 사용연대 : 1800년대

2) 현상 : 상태는 양호함

3) 참고 : 실다리 안경의 집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짐(안경3. 실다리안경과 한세트)

바. 안경집 1점



<그림6>

1) 재질, 형태, 사용연대 등

- 재질 : 종이
- 구분 : 중간 분리형 안경집
- 형태 : 가로형 타원형
- 사용연대 : 1900년대 초기

2) 현상 : 결 부분이 손상되어있음

3) 참고 : 꺾다리우각 안경의(안경2.) 집으로, 한세트임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안경집 인쇄된 영문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과 한글로 제증원이라 쓰여 있음. 1889년에 제증원이 설립되었고 1904년9월4일에 세브란스병원이 설립 되었으므로 추정 하건데 이 안경집은 1900년 초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시대적으로 황현 유품으로 보이며 생활 유품 등록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史料)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결 부분이 손상되었으므로 세심한 관리요함

<○○○ 전북대학교 교수(2019.6.20)>

1) 조성연대

- 19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것을 매천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

2) 현상

- 매천 황현은 유명한 조선말 유학자이자 우국지사로서 선비의 기품을 잘 보여줌. 그의 생활유품은 조선시대의 유학자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며 황현의 순절 이후 후손들이 잘 보존하여 보존상태도 양호함. 이번에 추가로 조사한 3단 책장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선말의 책장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음. 이 책장은 소나무 판자와 한지를 사용하여 만든 3단으로 각 단의 문쪽에 양쪽 경첩을 2개씩 부착하고 손잡이와 문고리를 철재로 부착한 상태임.

3) 내용 및 특징

- 매천 황현(黃玹, 1855-1910)은 1883년 보거과에서 차석, 1888년 생원회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지만, 두 번 다 조선말의 관료부패에 낙담하여 구례로 낙향하여 공부에 몰두하였음.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갑오경장, 청일전쟁이 일어나 위기감을 느끼고, 『梅泉野錄』, 『梧下記聞』을 저술하였음. 1905년 11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음.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음. 『梅泉集』, 『梅泉詩集』, 『梅泉野錄』, 『梧下記聞』, 『東匪紀略』

등을 저술하여 조선말의 유학자의 세계관을 잘 보여줌.

- 정부는 1962년 그를 독립유공자(건국훈장 독립장)로 서훈하였고, 1909년 서울의 천연당사진관에서 촬영한 그의 사진(2점)과 그 사진을 토대로 채용신이 그린 그의 초상화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494호로 지정(2006)되어 있을 정도로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임.
- 현재의 책장은 원래 2조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실하여 1조만 남은 것이라고 현손이 말하였음. 3단 책장은 각 단에 2개의 문짝이 달려 있으며, 문짝마다 원형 경첩이 2개씩 부착되어 있으며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음. 각 문짝에는 문고리와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책장 내부와 외부는 한지로 두껍게 배접되어 있음. 책장의 오른쪽 제 1,2단 문짝 안쪽에는 X자형 종이걸이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관하는데 사용했다고 함. 책장의 하부는 1자형 다리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빠져 있는 상태임.



4) 문헌자료

- 자료
 - 黃玟, 『梅泉集』(7권3책), 上海, 1911 ; 『梅泉續集』(2권1책), 上海, 1913 ; 『黃玟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梅泉全集』(전5책),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 下, 원문(전3책), 미래문화사, 1985.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 1-4,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연구논저
 - 黃秀貞, 「梅泉詩의 이해를 위한 傳記 研究」, 『古詩歌研究』 10, 2002.
 - 이의강, 「매천의 삶과 문학」, 『한문학보』 23, 2010.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책장은 매천이라는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며 망국을 통분하며 순절한 우국지사가 사용하여 중요 인물과 연관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유물로 평가됨. 20대의 나이에 만권이 넘는 책을 독파하였다고 말했으며, 1천여권이 넘는 책들을 소장하여 검토하며 저술을 하여, 책장은 이러한 유학자의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임. 매천이 사용하던 다른 생활용품들과 함께 조선말 유학자의 유학적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군집의 하나임. 따라서 순절한 유학자 매천이 사용하여 당대 유학자이자 우국지사의 체취를 느끼게 해주는 유물이며, 또한 조선말 유학자의 유학적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군집의 하나로서 유학적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의 책장은 책장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나 세월이 흘러 배접한 한지 일부에 곰팡이가 생겼고 낡았으며, 책장 다리의 일부도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문짝의 경첩이나 잠금장치에 일부 녹이 나타나고 있어 그대로 두면 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빨리 보존에 유리한 공간으로 옮겨야 하며, 또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매천의 다른 생활유물들과 함께 조선말의 서재공간으로 전시하면 매천의 유물 전체가 어떻게 유학적 생활상을 구현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임. 따라서 매천 황현의 다양한 생활유물에 포함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 19세기 말 조선 유학자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2019.6.20.)>

1) 조성연대

- 19세기 중후반 제작되거나 사용.

2) 현상

- 매천 황현 선생은 한국의 근대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역사가, 시인 등으로 알려졌고, 우국지사였음. 대체로 매천 황현 선생의 일상생활 관련 유품은 다양하며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됨. 매천 황현 선생의 순절의 분위가 보존된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사 대상인 3단 1조 책장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임. 본 유물은 소나무 판자 및 한지를 사용한 3단 책장으로 뒷면과 문짝은 격자 짜임 위에 한지로 덧입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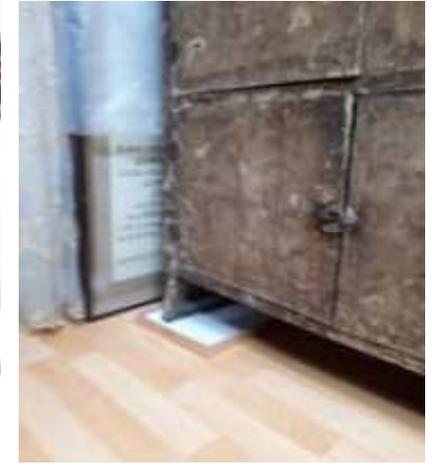
3) 내용 및 특징

- 본 조사의 책장은 1800년대 중반 구입, 2조로, 1조는 매천사유물관에 보관 중 도난을 당하여 현재 1조만 남은 것이라고 현손이 증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규격 : 가로 102.1cm, 왼쪽 세로 160.2cm, 오른쪽 세로 159cm, 폭 36.2cm임.
 - ② 3단으로 각 단에 양쪽 경첩을 2개씩 부착하고 손잡이와 문고리를 철재로 부착함. 문짝 우측 뒷면에 못자리가 확인됨.
 - ③ 2단 후면 벽체에 필사에 사용되는 한지를 활용하여 배접함. 다른 단은 일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④ 우측 하단에는 일자형 발이 확인되나, 좌측에는 떨어져 독립되어 일자형 목재가 별도로 존재함.
 - ⑤ 문짝과 후면 벽체에 격자 나무를 삽입한 것으로 추정됨.
 - ⑥ 문짝에 X자형으로 테이프를 부쳐서 우편물 낫이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함.(후손 회고)
 - ⑦ 소나무를 기본 틀로 사용하고 한지를 이용해 책장의 전면을 배접함.
 - ⑧ 책장의 우측 외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음.
- 기존의 매천 황현 선생의 일상생활 관련 유품은 문방구류, 착용 유물, 생활용품 등으로 분류됨, 본 조사의 해당되는 3단 1조 책장은 그가 소장한 1천여 권의 서적 보관에 필수적인 가구라고 할 수 있음.

○ 책장 사진



< 책장 전면 >



< 책장 하단 >



< 책장 내부 >



< 책장 옆면 >

4) 문헌자료

- 자료
 - 『黃玿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 『梅泉全集』(전5책),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 崔昇孝 編, 『國譯 黃梅泉 및 關聯人士 文墨萃編』, 上·下, 원문(전3책), 미래문화사, 1985.
 - 임정기 박헌순 권경렬 역, 『매천집』 1-4, 한국고전번역원, 2010.
- 연구논저
 - 이의강, 「매천의 삶과 문학」, 『한문학보』 23, 2010.
 - 홍영기, 『경술국치에 항거한 순국지사 황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매친 황현 선생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책장은 1천여 권의 책을 소장하는데 충분했던 것으로 보임. 본 조사를 통해 1조의 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로 다행이라고 판단됨. 매친 황현 선생의 유품인 본 책장은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크다고 보임.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매친 황현 선생의 이 1조 3단 책장은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여 세월의 흔적이 일정하게 보이기도 함. 단, 표면의 곰팡이 추정의 흔적이 있고, 다리 한쪽이 불완전하여 수리와 보존 처리가 요청된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근대 유학 지식인의 생활상을 파악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보 고 사 항

10.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주변 현상변경(경찰버스용 전기공급함 설치)

가. 보고사항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 경찰청장	<p>(1)허가받는다 : 서울 지방경찰청장</p> <p>(2)허가내용 <경찰버스용 전기공급함 설치> ○설치위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34-2 (1구역 내) ○구조, 규모 : 스틸판, 1개소 (105× 665×1,700mm)</p> <p>(3)허가(공사)기간 : 2019. 7. 20.~2019. 12. 31.</p> <p>(4) (참고) 전문가 조사의견 <문화재위원 ○○○(‘19.7.17.)> ○시위 대비를 위해 주차 대기하는 경찰 버스에 전력 공급을 위해 인도에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상변경 계획임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찰 버스가 대기 시 공회전을 하지 않게 되어 문화재 보존에 유해한 매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문화재 보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됨 ○전기 공급시설이 인도의 외곽지점에 기존 가로등 지주와 수목 사이에 소규모 구조로 설치되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 할 것으로 판단됨</p>	허가	‘19.7.1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11.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현상변경(문화재 경관조명 설치)

가. 보고사항

사적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남 목포	목포 시장	<p>(1) 허가받는자 : 목포시장 (2) 허가내용 <사업내용> 문화재 경관조명 시설 <사업위치> 전남 목포시 영산로 29번길 6 (문화재 보호구역 내) <시설개요> ○ 사각형 LED투광등 4셋트(100W, 전구색, 340mm×280mm×2조/셋트) - 경내 기존 가로등에 설치 : 2개 - 경내 가로등의 장소 이동 후 동 가로등에 설치 : 2개</p> <p>(3) 허가(공사)기간 ○ 2019. 6. 27. ~ 2019. 12. 30.</p> <p>(4) 허가조건 ○ 문화재청의 현장 조사 시 목포시에서 제시 협의하였던 내용과 같이 경내의 기존 가로등을 활용하여 경관 조명 등 기구 4셋트를 설치하도록 함. - 기존 가로등에 설치 : 2EA - 기존 가로등 장소 이동 후 설치 : 2EA</p> <p>(5) (참고) 전문가 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000('19.6.18.)> ○ 문화재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해 건물 주변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건물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건물 주변의 기존 가로등 4개소 (2개소는 위치 이동) 각각의 지주(기둥)에 LED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므로 문화재의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p>	조건부 허가	'19.6.26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12.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 보고사항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전북 익산시	최재수	<p>(1) 허가받는자 : 최재수 (2) 허가내용 ○ 사업내용: 무허가 축사 적법화 -8번 동: 계사동/ 연면적 61.05㎡/ 1동/ 최고높이3.2m/ 경량철골조 -9번 동: 가축용 창고 /연면적 92.75㎡/ 1동/ 최고높이2.4m /경량철골조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022번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3구역/ 공통사항중 축사건축-심의사항)</p> <p>(3) 허가기간 ○ 2019. 7. 3. ~ 2019. 12. 31.</p> <p>(4) 전문가 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19.7.1.)>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지역에서 기존 도계사 건물들에 비해 소규모로 낮게 건축된 무허가 도계사 건물 2동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하려는 내용임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보면 기존 도계사 건물들이 4m 정도 성토된 국도에 의해 시각적으로 차폐, 분리되고 또한 적법화 대상인 두 동의 도계사 건물들도 기존 건물들에 의해 시각적으로 차폐되므로 문화재의 보존과 기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p>	허가	'19.7.3.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13.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행사)

가. 보고사항

사적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서울 서대문	서대문 구청장	<p>(1) 허가받는다 : 서대문구청장</p> <p>(2) 허가내용 <사업내용> 2019.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행사 <사업위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문화재구역 내) <행사개요> - 장소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내 - 기간 : 8.14~8.15 (2일간) - 행사내용 : 8.15를 맞아 광복을 축하하고 독립과 민주주의 역사를 알리며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축제 추진 <무대 등 가설 구조물> - 메인행사장 · 메인무대 : 1개소 (규모:16.9×9.0×9.1/구조:철물트러스) *기타장비 : 영상모니터2, 중계, 발전차1대, 음향, 스피커, 조명 등 · 객석규모 : 약 800석 - 체험행사장 · 캐노피텐트 38동 (단위규격 3.0×6.0×3.0) · 참여인원 : 1만명 수준 (2일간 총인원 기준)</p> <p>(3) 허가기간 ○ 2019. 8. 12. ~ 2019. 8. 16.</p> <p>(4) 허가조건 ○ 행사 내용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행사 내용은 고증자료를</p>	조건부 허가	'19.6.28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p>확보 후 사실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행사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끼치는 아니되며 이의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함 ○ 행사 준비, 진행, 완료단계 까지 모두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와 같은 사항의 불이행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사중이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 불허처리가 될 수 있음 <p>(5) (참고) 전문가 조사의견 <문화재위원 ○○○('19.6.26.)> ○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매년 시행하였던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2019년에도 개최하기 위해 행사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임 ○ 주요 설치물은 메인무대 1개소와 간이천막 38동으로 모두 행사기간 동안만 설치, 이용되는 임시용 가설 방식으로 설치되며, 예년 행사와 동일한 규모 방식으로 설치. ○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행사기간 동안에만 설치, 이용되는 임시 가설시설이고 기존 시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조립식 공법으로 설치되고 예년과 동일한 규모, 방식으로 설치되므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행사기간 동안 음향 및 조명 관련 다수의 전기설비가 설치되므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에 유의 할 필요가 있음</p>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14.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병원 외래접수동 증축)

가. 보고사항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 병원	대구 광역시 중구	경북 대학교장	<p>(1) 허가받는자 : 경북대학교장</p> <p>(2) 허가내용</p> <p>○사업내용: 병원 외래접수동 약국과 체혈실 공간 활용 위해 1층 벽체에 연속하여 증축(연면적 50.37㎡증가) -체혈실: 45.22㎡/ 지붕-샌드위치패널 위 산화황동판 마감, 벽체 로이유리</p> <p>-약국: 5.15㎡/ 지붕-샌드위치패널 위 알루미늄패널 마감, 벽체 로이유리</p> <p>○사업위치: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경북대학교병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 개별심의)</p> <p>(3) 허가(공사)기간</p> <p>○2019. 6. 25. ~ 2019. 11. 30.</p> <p>(4) 전문가 조사의견 <문화재위원 ○○○('19.6.24.)></p> <p>○문화재 건물의 주변 건물(병원 외래동) 1층 전면부에 약국, 체혈실을 일부 확장, 증축하는 현상변경 계획으로 증축 면적과 입면 변화가 소규모이고 외벽도 기존 재료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마감하므로, 문화재 건물의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p>	허가	'19.6.25.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